

# 리아하나

## 이 영광스러운 날을 기억하십시오, 24쪽

가정에서 구주에 대해  
가르치는 방법, 10쪽

주님께 인도되어  
팔마이라로 간  
조셉의 길, 14쪽

더 나은 제자가 되기  
위하여: 누가복음의  
교훈, 28쪽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9~11



**메시지**

- 4 제일회장단 메시지:  
가족은 영원해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7 방문 교육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속성:  
유덕하심

**특집 기사**

- 10 가정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기”  
대런 이 슈미트  
더욱더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가정을 만들 아이디어.
- 14 팔마이라로 가는 길  
매튜 에스 홀런드  
첫번째 시현이 일어난 장소이자 금판이 감춰졌던 장소인 팔마이라로 가는 길은 조셉 스미스와 그의 가족에게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 20 구조를 기다리며  
코니 굴딩  
개인적인 시련이나 연약함, 또는 어려운 상황에 꿈쩍없이 감했다는 기분이 들 때에도 구조될 희망은 있습니다.
- 24 영광스러운 신권 회복의 날  
엘 톰 페리 장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그분의 교회와 신권을 회복하셨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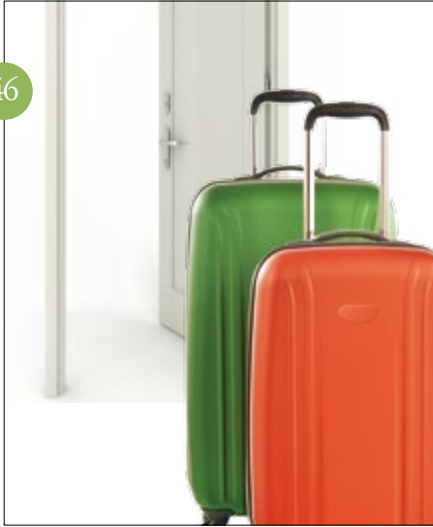
- 28 제자의 길에 대한 구주의 가르침  
케이시 더블유 올슨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마지막 여정에 나오는 네 가지 사건에서 우리는 더 나은 제자가 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 34 사람을 낚는 어부  
스콧 디 와이팅 장로  
한 와드에서 와드 평의회가 제대로 기능하자 일대 변화가 일어났다.

**교회 본부 기사**

- 8 교회에서 봉사함  
사랑에 대해 배운 교훈  
제니스 테이트
- 9 단상: 별새 구조  
윌리엄 호건
- 38 후기 성도의 소리
-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내려놓으십시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표지  
앞 사진: 레슬리 닐슨, 안쪽 앞표지 사진: Rodvan Çelik/iStock/Thinkstock, 안쪽 뒤표지 사진: 코디 벨.

46



**42** 주님께에서 오는 확신을 신뢰하며  
민디 앤 레빗  
주님께서는 곧바로 구조하는 대신,  
시련 중에 찾아오는, 값을 매길  
수 없는 확신의 순간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수도 있다.

**46** 이동은 없습니다  
신야오 초  
같은 지역에서 6주 동안 더 머물라는  
말에 내 귀를 의심하게 되었다.



이번 호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단서: 자동차 외에  
여러분은 어떤 것을  
운전할 수 있나요?



**48** 급변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이 네 가지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삶을  
단순화합시다.

**52** 우리들 공간

**54** 침례 요한처럼 복음을 나누라  
라이언 카  
어떤 점에서 여러분의 사명은 침례  
요한의 사명과 비슷한가?

**56** 하지만 만일 ... ? 선교사 봉사에  
대한 질문  
여러분이 선교사로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고 싶은가? 이  
일반적인 질의응답 내용이 도움이 될  
것이다.

**60** 질의응답  
사람들의 대화에 끼고 싶다는 이유로,  
나쁜 일을 딱 한 번 시도해 보겠다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제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62** 경전 공부 퍼즐  
코디 필립스  
퍼즐을 맞추고 경전 공부에 더 많이  
힘쓸수록 여러분은 더 큰 그림을 보게  
될 것이다.

**65** 복음으로 맺어진 자매  
파올라 사라히 에르난데스 크루즈  
파올라는 외로워하는 친구를 위해  
복음의 축복을 나누고 싶었다.



72

**66** 특별한 증인:  
성신으로 어떻게 인도될 수 있는가?  
엘 톰 페리 장로

**67** 음악: 성신  
진 피 로울러

**68** 경전 속으로: 선한 목자  
에린 샌더슨

**70** 우리들 이야기

**71** 신약전서 경전 인물: 선한 목자

**72** 스티븐의 미래 아버지의 날  
켈리 조지 퍼실  
엄마는 스티븐이 아버지의 날에  
슬퍼하지 않도록 멋진 아이디어를  
생각해 냈습니다.

**74** 미아의 간증  
아멜리아 호킨스  
미아는 간증을 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76**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십일조로 지은 집  
재널 윌리엄스

2015년 6월호, 제52권, 제6호

리아호나 12566 320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제일회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미터 예프 우흐트도르프  
신사도장 정원회: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톨 페리,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해일즈, 제프리 알 홀랜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도드 크리스토퍼슨, 닐 웨인 앤더슨

편집인: 크레이그 케이 카든

교문: 머빈 비 아들드, 크리스토퍼 골든, 래리 알 로렌스, 제임스 비 마르티노, 조셉 더블유 시타리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티 워너

운영 책임자: 빈센트 에이 본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르 캐넌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라이언 카

부출판인: 리사 캐롤리나 로페즈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브리트리니 비에티, 데이비드 덕슨,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플러튼, 로리 풀러, 게렛 에이치 가르, 라린 포터 건트, 민디 앤 레트, 마이클 알 모리스, 셸리 존슨 오케이크, 조슈아 제이 퍼커, 켈 핀보로우, 리차드 엠 룬니, 폴 벤덴버그, 머리아 워튼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코트 크누센

미술 책임자: 데드 알 피터슨

디자인: 저넷 앤드류, 페이 피 앤드러스, 시 킴볼 보트, 토마스 차일드, 네이트 지네스, 클린 윙글러, 에릭 피 존슨, 수잔 로프그렌, 스킷 엠 무이, 마크 더블유 로빈슨, 브래드 테어, 케이 니콜 워큰호스트

지적 재산 코디네이터: 클레트 네베커 오운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제작 팀: 콘니 바스토 브릿지, 줄리 버넷, 캐티 던컨,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드니스 커비, 지니 레이 날슨, 가일 타데 레퍼티

사진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윅

배부 책임자: 스티븐 알 크리스텐슨

미국, 캐나다 외 지역에서는 store.lids.org에서, 또는 현지의 교회 배부 센터, 혹은 약드, 지부 지도자에게 리아호나를 신청하거나 구독료를 문의하십시오.

통권: 제591호, 제52권, 제6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5년 6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동환

편집 및 번역 책임자: 백길환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http://liahona.or.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이메일: [liahona-korea@ldschurch.org](mailto:liahona-korea@ldschurch.org)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교회 잡지 구독 신청서(Excel)"는 [www.lids.or.kr](http://www.lids.or.kr) "물품신청" 교회 잡지

구독"에서 다운로드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70-4816-2500)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7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liahona.lids.org](mailto:liahona.lids.org)에 온라인으로, 또는

[liahona@ldschurch.org](mailto:liahona@ldschurch.org)에 이메일로 보내시거나 다음 주소로 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2420,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마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투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간체자)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타히티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5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시각 자료는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시각 자료는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mailto: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June 2015 Vol. 39 No.

6. LIAHONA (USPS 311-480) English (ISSN 1080-955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store.lids.org](http://store.lids.org).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707.4.12.5). 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

0368, USA.

# 가정의 밤 제언

이번 호에는 가정의 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사와 활동이 실려 있다. 다음은 두 가지 아이디어이다.



“영광스러운 신권 회복의 날”, 24쪽: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간단하게 선을 그림으로써 신권이 어떻게 전해 내려왔는지를 설명하는 방법을 고려해 본다. 아담부터 시작하여 구약의 선지자들까지, 그런 다음 예수 그리스도부터 사도들과 조셉 스미스까지 선을 그린다. 교리와 성약 13편 1절에 기록된, 침례 요한이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아론 신권을 부여했을 때 한 말을 암기하기 위해 시도하고, 그 사건의 중요성을 토론해 볼 수도 있다.

“미아의 간증” 74쪽: 기사를 함께 읽은 후 간증을 얻는 방법, 즉 기도, 경전 읽기,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씀 듣기,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기, 자신의 간증을 나누기 등과 같은 방법에 대해 토론해 볼 수 있다. 간증이 어떻게 빛과 같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부모가 자신의 간증을 전하고 자녀들도 원하면 간증이나 느낌을 나누도록 격려할 수 있다.

## 여러분의 언어

리아호나와 그 밖의 교회 자료를 [languages.lids.org](http://languages.lids.org)에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다.

## 이번 호 주제

숫자는 각 기사의 첫 장을 나타냅니다.

가르침, 10

가족 역사, 4

가족, 4, 10, 48, 72

간증, 56, 74

경전, 62, 68, 71

구조, 9, 20

기도, 10, 74

덕, 7

물문경, 10

보살핌, 9, 28, 34

봉사, 8, 24, 34, 41, 48

사랑, 8, 40

선교 사업, 54, 65

선교부, 40, 42, 46, 54, 56

성신, 62, 66, 67, 74

성전 사업, 4, 6, 70

소망, 42

속죄, 20, 42

시련, 20, 42, 52

신권, 4, 24

십일조, 76

아버지, 72

예수 그리스도, 7, 10, 20, 28, 42,

48, 54, 66

와드 평의회, 34

용서, 80

음악, 8, 53, 67

이타적인 마음, 28

인내, 38

재림, 54

제자 됨, 28

조셉 스미스, 14

지도력, 34, 46, 80

취업, 39, 52

침례, 65, 70

하나님 아버지, 48

활동 촉진, 9

회개, 56

회복, 14, 24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 가족은 영원해

**가** 족을 영원히 묶는 신권 권능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은사 중 하나입니다.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영속적인 축복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은 가족이 영원히 묶일 수 있는 약속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헌납된 성전에서 거행되는 인봉 의식에서만 주십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신권 열쇠를 커틀랜드 성전에서 조셉 스미스를 통해 지상에 회복해 주었습니다. 그 신권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살아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지상 성역을 베푸시던 시기에 구주께서는 선임 사도인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가족을 인봉하는 권능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태복음 18:18).

우리가 가족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은 해의 왕국뿐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의 면전에 거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그 놀라운 경험을 교리와 성약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주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는 그를 계신 그대로 보게 되리라. 우리는 그가 우리와 같은 사람임을 보게 되리라.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과 똑같은 사귀이 그 곳에서도 우리 가운데 존재하리라. 다만 그 사귀에는 지금 우리가 향유하지 못하는 영광, 곧 영원한 영광이

수반되리라.”(교리와 성약 130:1~2)

이 성구는 우리가 가족 관계에서 확신을 갖고 천국의 표준을 추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살아 있는 가족이든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이든 우리는 우리를 하늘에서 묶어 줄 신권 의식을 그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모든 일을 다 할 만큼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이 나이를 불문하고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과 인봉되는 의식을 아직 받지 못한 조상들의 이름을 찾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거의 모두 신권 권능을 통해 가족으로 인봉되지 않은, 살아 있는 친척이 있습니다. 신권 의식을 받았으나 하나님과 맺은 성약을 지키지 않는, 살아 있는 친척을 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신앙으로 이런 모든 친척에게 손을 내밀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주님께로 사람들을 데려오고자 떠나는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하신 이 약속은 여러분에게도 해당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거기에 나도 있으리니, 이는 내가 너희 앞서 나아 갈 것임이라.

나는 너희 오른편에도 왼편에도 있을 것이요, 나의 영은 너희 마음속에 있을 것이요, 나의 천사들은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받쳐 주리라.”(교리와 성약 84:88)

저는 날마다 사무실 창을 통해 아름다운 꽃과 분수 사이에서 사진을 찍는 신랑 신부를 봅니다. 신랑이 신부를 들어 올려 휘청대며 몇 발짝을 옮기고, 그 모습을 사진사가 담는



수 있을 만한 관계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음 상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속히, 그리고 완전히 용서하기로 마음먹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힘쓸 수 있습니다. 친절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하려 노력함으로써 우리는 성신을 우리 가정과 삶에 초대하게 됩니다.

주님의 도움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노력한다면, 우리가 영원히 누리고 싶어 하는 그러한 삶을 조금은 이생에서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구주께서는 속죄 권능을 통해,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 능히 지킬 수 있는 성약을 맺고 때가 이르면 다시금 해의 영광인 본향에서 가족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게 해 주십니다. ■

광경을 자주 봅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때로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삶이 힘들어져 다른 방법으로 서로를 들어 주어야 했던, 제가 아는 부부들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자녀가 큰 장애를 안고 태어날 수도 있고,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삶이 평탄하여 타인이 우리에게 해주길 바라는 대로 타인을 대하기가 더 쉬운 시기에 노력하여 그런 습관을 들인다면 시련의 시기, 즉 내재된 힘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한 시기에 우리는 영웅과 같이 변모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하나님 앞에 가져갈

## 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영**원한 가족에 관한 교리를 나눌 때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본다. “항상 가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가족이 성전에서 인봉받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리라는 비전을 갖고 가르치십시오. … 여러분이 성전에서 행하는 인봉 의식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돕게 될 것입니다.”(“본을 보였노라”,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34쪽)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인봉받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력을 키우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아직 인봉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의식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하도록 권유한다. 인봉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가족에 대한 비전을 유지하고 서로의 관계를 발전시킬 방안을 토론하도록 권유한다.

### 영원히 가족으로 맺어지다

로라 버튼

**나**의 어머니는 나를 세 살 때 입양 보내면서, 양부모님에게 내가 열두 살이 된 후에 교회 의식을 받게 하겠다는 데 동의를 구한 후 입양 절차를 마무리해 주셨다. 내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나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지만, 나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무척 어려웠다.

많은 친구들이 여덟 살이 되어 침례 받는 것을 보는 것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도 열두 살이 되기 전까지는 양부모님과 우리 남매들에게 인봉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더 힘들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 가족에게 인봉될 수 없게 되거나 않을까 두렵기도 했다.

열두 번째 생일이 다가오자 우리 가족은 내 침례와 가족 인봉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부모님께서는 나에게 인봉받고 싶은 성전을 고르라고 하셨다. 나는 늘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성전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모두 인봉을 받기 위해 캘리포니아까지 차를 타고 가기로 결정했다.

나는 부모님과 우리 남매들과 함께 영원한 가족이 되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인봉을 받는 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영을 느꼈다. 이제 나는 마침내 가족에게 인봉되었다. 가족과 영원히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알기에 이제는 걱정 대신 위안과 평안이 내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다.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 어린이



### 성전을 바라보며

**아** 이어링 회장님은 우리가 성전에 가서 가족과 함께 영원히 인봉될 수 있는 것은 신권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좋아하는 성전을 그리거나 사진을 찾아 매일 볼 수 있는 곳에 붙여 두세요. 나중에 성전에 가기 위해 어떻게 준비를 하겠는지 그 방법을 목록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 자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누구와 나눌지 알기 위해 간구한다. 구주의 신성한 속성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그분을 믿는 신앙을 키우고, 여러분이 방문 교육을 통해 돌보는 자매들을 축복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더 자세한 내용은 [reliefsociety.lds.org](http://reliefsociety.lds.org)에서 알아볼 수 있다.

#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속성: 유덕하심

다음은 구주의 속성을 특징으로 다루는 방문 교육 메시지 연재 기사이다.

**“수**지 말고 덕으로 네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네 확신이 점점 강하여지리니, 신권의 교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같이 네 영혼을 적시리라.”(교리와 성약 121:45)

덕이란 무엇일까? 제임스 이 파우스트(1920~2007)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덕이란 보다 넓은 의미에서 인격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의로운 특성들을 포함합니다.”<sup>1</sup>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은 이렇게 덧붙였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모든 덕의 뿌리입니다.”<sup>2</sup>

여성과 덕의 관계에 대해 십이사도 정원회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여성은 태생적으로 어떤 덕성을 갖고 태어나는데, 곧 능숙하게 신앙, 용기, 공감, 관계 개선, 문화 향상 등과 같은 속성을 심어 줄 수 있는 신성한 은사를 타고나는 것입니다. ...



자매 여러분, 삶의 모든 관계에서 항상 제1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도덕적인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맺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힘은 오직 아버지의 뜻에 전념하는 것에서 비롯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 아버지와 아들의 제자가 되기 위해 애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향력은 결코 시들지 않을 것입니다.”<sup>3</sup>

## 보충 성구

시편 24:3~5; 빌립보서 4:8; 베드로후서 1:3~5; 엘마서 31:5; 교리와 성약 38:23~24

주  
1. 제임스 이 파우스트, “하나님의 의로운 딸들이 지닐 미덕”,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108쪽.  
2. 고든 비 힝클리,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의 최근 말씀의 인용 모음,” *Ensign*, 1996년 4월호 73쪽.  
3.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여성의 도덕적 힘”,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29~32쪽.  
4. 덕의 능력(마가복음 5:30 참조).  
5. 경전 안내서는 “신권”을 “사람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권능이자 권세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교리와 성약 50:26~27)

## 생각해 볼 점

덕은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우리를 강화해 주는가?



## 신앙, 가족, 구제

### 성구에서

오늘날, 신앙으로 충만한 유덕한 여성들은 구주께 도움을 구한다. 누가복음 8장에는 12년간 치유되지 않는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그녀는 병 고침을 얻기 위해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virtue)<sup>4</sup>이 나간 줄 알이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리어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온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누가복음 8:43~48 및 6:17~19 참조)

우리가 그리스도께 도움을 구할 것을 선택할 때 그리스도는 그분의 유덕함<sup>5</sup>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가능하게 하시며, 강화하시고, 위안을 주시고, 복돋아 주신다.

# 사랑에 대해 배운 교훈

제니스 테이트

나는 그런 간단한 봉사 활동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그분의 사랑에 대해 그토록 많은 것을 가르쳐 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나**는 그 봉사 활동을 그저 전형적인 봉사 프로그램으로만 생각했다.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모여 우리 와드 회원이 입원해 있는 것도 아닌, 지역 병원의 회복 센터에서 짧은 합창 공연을 하면 되는 거였다.

우리는 연세가 지긋한 환자 아홉분의 눈길을 받으며 좁은 방에 뻑뻑하게 들어서 있었다. 환자들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다. 덥고 숨이 막혔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런 건 빨리 끝내는 게 좋아.'

지휘를 해야 했기 때문에 나는 환자들에게 등을 돌리고서 공연에만 집중했다. 공연을 시작했는데, "엄마,

엄마." 하고 소리치는 소리와 또 다른 환자가 박수를 치며 소란을 피우는 소리가 들렸다.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조금만 참으면 우리는 마치고 집에 갈 수 있을 것이었다.

마지막 찬송가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찬송가, 50장)를 부르려 준비할 때, 우리는 환자들과 의료진에게 함께 부르자고 권했다. 모두가 함께 노래하도록 지휘하기 위해 돌아섰을 때, 가냘프고 주름으로 쪼글쪼글한 백발의 할머니가 무릎에 눈물 젖은 휴지를 가득 쌓아 둔 채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다.

할머니는 몸짓으로 이리 오라고 불렀다. 내가 다가가서 무슨 말을 하나 들으려고 고개를 숙였을 때, 할머니는 내 손을 잡았다. 할머니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속삭였다. "나도 후기 성도예요. 우리 자매들이 오니 정말 좋네요."

내 영혼은 영으로 가득 찼다. 나는 할머니 곁에 무릎을 꿇었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다. 할머니는 연약한 팔로 나를 감싸 안아 주며 다 이해한다는 듯 토닥여 주었다. 다 함께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나는 노래를 시작할 수 없었다.

환자들과 직원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자 방은 영으로 가득 찼고 모두가 감동을 받았다. 마침내 나는 감정을 추스르고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다.

주 예수님 세상에 다시 올 때  
내 마음에는 기쁨 넘치리  
겸손하게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공연을 마친 후에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환자들과 직원들과 어울려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백발의 자매님은 우리가 오기 전까지 이방인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느껴져 외로웠다고 하셨다. 우리는 그 자매님이 거기에 계신 것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알고 계셨다.

나는 이 모든 사람이 우리의 형제 자매이며, 그들은 사랑과 위안이 필요하며, 언젠가 나도 그곳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다. 나는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도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에 감동을 받았으며, 우리의 봉사 활동에서 사랑에 관한 강력한 교훈을 배울 수 있음에 감사했다. ■

글쓴이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산다.



## 행동이 따르는 사랑

"세상에는 소외된 사람에게 관심을, 용기 잃은 사람에게 희망을, 고통받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참된

사랑에는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사랑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4쪽.

# 벌새 구조

윌리엄 호건

벌새를 구조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약한 사람을 돕는 법을 알게 되었다.

**캘리포니아**의 산지에서 개최된 청년 야영에서, 청년들과 지도자들은 통나무집에서 저녁 식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리는 동안 몇몇 청년들은 탁자 아래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어쩌다 우리 숙소에 들어와 나갈 길을 찾지 못한 벌새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자매들은 나에게 도움을 청했다.

새는 거의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부리는 거미줄로 덮여 있고 깃털은 엉클어져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새를 컵에 담아 밖으로 나갔다. 새가 스스로 회복하길 바랐지만, 현실적으로는 모든 생명체가 가게 되는 길인 죽음의 길을 가게 될 것 같았다. 그런데 컵을 기울여 벌새를 조심스럽게 땅에 내려놓으려고 하는 순간, 벌새가 컵에서 미끄러지면서 조그만 발톱으로 컵 가장자리를 붙잡았다. 나는 컵을 다시 똑바로 들었다. 새는 컵 가장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새를 보고 있던 한 지도자가 설탕물을 만들어 갖다 주었다. 우선 나는 바늘처럼 날카로운 부리에서 거미줄을 살며시 털어내었다. 새는 움직이지 않았다. 다시 설탕물 손가락을 담가서 부리 끝에 한 방울 떨어뜨렸다. 새는 꿈쩍도 안 했지만 그 설탕물 한 방울은 이내 사라졌다. 설탕물이 부리에 스며들었나? 나는 다시

한 번 손가락을 담가서 새 부리에 갖다 대었다. 이번에는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혀가 나오더니 내 손가락 끝을 핥는 것이었다.

10분에서 15분 남짓한 시간 동안 벌새는 한 모금씩 설탕물을 마셨다. 그때 서너 명의 다른 지도자들이 주위에 모여들었고 나는 사람들에게 설탕물을 먹여 볼 기회를 주었다.

그러다 새가 갑자기 눈을 떴다. 엉클어진 깃털도 곧 가지런해졌다. 몇 모금 더 마신 후, 새는 날갯짓을 시작하더니

잠시 퍼덕거리다 곧 하늘로 날아 올랐다. 새는 우리 위에서 잠시 머뭇거리더니 멀리 날아가 버렸다.

우리는 어안이 병병한 채로 서 있었다. 그리고, 새가 갑자기 날아간 것처럼 순간적으로 영적인 교훈이 찾아왔다.

- 저활동 회원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대개 우리의 노력은 별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베푼 사랑은 틈새로 들어가 영적인 영양분을 주어 언젠가 결실을 가져올 것이다. 꿈쩍도

못하던 벌새의 부리에 스며든 설탕물처럼 말이다.

- 스스로 더 나아갈 수 없을 때, 우리는 친절하게 보살펴 주는 도움의 근원이 필요하다.
- 때로 죄나 중독의 거미줄에 걸려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친구와 신권 지도자, 그리고 구주의 도움이 필요하다.
- 견디기 위해서 우리는 규칙적인 영적 영양분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힘이 고갈되어 약한 영향력의 포로가 되고 만다.

- 벌새는 계속 매달려 있었다.

문자 그대로 매달려

있었기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 가끔 인생에서 고통스럽고 때론 끔찍하기까지 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그저 신앙으로 견디어야만 한다.



신약전서에는 주님께서 참새가 떨어지는 것까지도 아신다는 말씀이 나온다.(마태복음 10:29~31 참조) 나는 이제 주님께서 벌새가 떨어지는 것 역시 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또한 그렇게 알고 계신다. ■ 글쓴이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산다.



# 가정에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기”



“또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며 또 우리는 우리의 예언에 따라 기록하노니, 이는 우리의 자손들이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무슨 근원을 바라보아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라.”(니파이후서 25:26)

대런 이 슈미트

어느 해 부활절 기간에 아내가 구주의 지상 생활 마지막 주에 관한 경전 기록을 가족과 함께 읽어 보자고 제안했다. 우리는 매일 밤 취침 시간에 신약전서를 읽었다. 아울러 각 사건에 관한 짤막한 동영상도 아이들에게 보여 주고 거기서 떠오르는 여러 질문을 토론했다. 그렇게 경전을 읽고 토론하는 동안 나는 아이들이 내놓는 여러 가지 질문에, 또 집 안에 임한 영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주말이 되어 구주의 희생과 우리를 위해 겪으신 그 모든 일에서 비롯된 영원한 결과를 돌아쳐보며, 나는 그분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을 느꼈다. 나 자신뿐 아니라 아내 또한 영감을 느꼈다는 것도 알았다. 아이들도 구주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으며, 서로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태도를 보이려는 열망이 더욱 커진 것 같았다.

그 후 우리는 대화와 공과에서 더 많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기” 또 다른 방법들을 알아냈다. 우리는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움으로써 인생의 폭풍에 맞설 수 있는 큰 힘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힐라맨서 5:12 참조)



기도하라”고 지시받는 교리와 성약 10편 5절, 혹은 “악한 영은 사람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에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가르침이니라.”(니파이후서 32:8)라고 한 니파이의 권고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성구들은 기도의 교리에 관해 강력한 가르침을 전해 준다. 그런 점을 토론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어떨까? “구주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지?” 혹은 “구주의 기도는 어떠했지?” 더 어린 자녀가 있다면

### 구주를 우리 가르침의 중심에 둔다

우리가 깨우친 사실 중 하나는 구주의 모범과 가르침을 가족 토론과 일상 생활에 적용하면, 더욱 힘차고 의미 있어진다는 점이다. 구주께서는 다음과 같은 비유로 가르치셨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요한복음 15:5). 우리의 가르침에 이 비유를 적용하면, 우리는 복음 원리들을 서로 무관한 개념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선언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딸린 부속물로 가르치게 된다.<sup>1</sup> 이렇게 하여 우리는 구주를 그분의 참된 포도나무에서 따낸 이파리가 아니라 가르침의 중심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분을 가르침의 중심으로 삼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는 가지들을 포함하여 영양과 힘, 성장을 약속받는다. 다시 말해 우리의 토론과 학습은 개심하는 힘을 더 크게 키우고 장기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우리가 알아낸 것은 특정 복음 원리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나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런 원리나 가르침을 어떻게 보여 주셨지?”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거나 가르치셨지?”

### 기도에 관한 가르침의 실례

가령,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친다고 하자. 우리는 “항상

이렇게 물을 수 있다. “구주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을 것 같니?”

잠시 마음에 떠오르는 경전 이야기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그 질문에 대해 개인적으로 어떻게 대답할지 생각해 본다. 나는 곧바로 “예수께서 아버지께 간구하시니, 이제 그 기도하신 것을 능히 기록할 수 없으되, ... 예수께서 아버지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들은 바 것처럼 크고 기이한 일을 이전에 결코 눈으로 본 적이 없으며, 귀로도 들은 일이 없느니라.”(제3니파이 17:15~16)라고 기록된, 미대륙을 방문하신 구주를 떠올려 본다.

이 이야기의 후반에서 우리는 백성들이 그분의 방식을 따라 기도하려 했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저들에게 기도할 바를 주셨고, 또 저들은 소망으로 가득하였던지라, 많은 말을 더하지 아니하더라.”(제3니파이 19:24; 강조체 추가) 이 시점에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기도하고자 하는 소망으로 가득 찼던 때를 말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자신이 기도 중에 할 말이 떠올랐던 때를 이야기해 줄 수도 있다. 그런 다음, 구주께서 가르치신 방식대로 기도할 때 기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간증하면 된다.

이러한 성구에서 찾은, 또는 여러분과 아이들이 나는 간증에 담긴 기도의 원리를 실천할 때, 아이들이 얼마나 달라질지 생각해 본다. 그렇게 할 때, “사람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치느니라”(니파이후서 32:8) 바로 그 영에 인도되어 영을 느끼고

인식하며 자신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고 신권 축복을 주며 장차 자신의 가정을 꾸릴 아이들의 능력이 얼마나 커질지 생각해 본다.

이러한 가르침에서 구주의 모범이나 가르침이 빠져도 기도에 대한 토론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분의 모범과 가르침을 포함하면 깊이와 힘이 더해진다.

### 복음을 주제로 한 작품

우리가 가정에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기 위해 했던 또 다른 일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이 알도록 그리스도의 그림이나 성전 사진 및 기타 복음과 관련 있는 것들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한 것이다.

몇 해 전에 아이들과 함께 십일조 결산을 하시던 감독님은 열 살 된 우리 아들에게 구주를 따르겠다는 우리 가족의 다짐을 끊임없이 일깨우도록 집 안에 구주의 작은 그림을 걸어 둘 곳을 정하라고 권하셨다. 집으로 돌아온 아이는 그림을 현관문에 붙였다. 아들은 그곳이 “온 식구가 그 그림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커다란 축복이 되었다. 아울러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약속을 작지만 강하게, 날마다 끊임없이 일깨워 주었다.

위치가 어디이든 간에, 벽에 걸린 그림과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전해 주고 싶은 메시지에 주목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우리 집에 있는 그림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메시지를 표현하고 있는가?

###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다른 방법

예수님이 만화 속 영웅보다 더 힘이 세냐며 한 아이가 물어봤을 때 웃음을 터트린 적이 여러 번 있음을 시인한다. 하지만 아이의 질문은 늘 구주께서 왜 특급 영웅보다 더 위대하신지에 대한 훌륭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더욱더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가정이 되기 위해 우리는 그와 같은 일상의 대화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물론경을 사용하여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 가르친다. 속죄 혹은 속죄하다라는 낱말은 물론경에 39회 나온다.

-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는 물론 메시지 동영상이나 성경 비디오 및 기타 교회 미디어를 사용하여 가정의 밤 공과 및 경전 학습을 강화한다.
- 구주에 대한 찬송가를 함께 배우고 노래하며 그 가르침과 의미를 토론한다.
-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증인임을 강조할 방법을 찾는다.
- 구주와 자신의 관계를 향상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나는 면밀한 연구와 간절한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시며, 그분의 위대한 선물인 속죄는 실재하고 우리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의미와 목적을 부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속죄는 우리 가족이 영원토록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리라는 원대하고도 영광스러운 소망을 안겨 준다. 우리 모두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나 방편이 달리 없고,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리스도를 통해서일 뿐”(앨마서 38:9)임을 인식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가정을 이루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깨닫기를 바란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 49~50쪽 참조.



# 팔마이라

로 가는 길



첫번째 시현이 일어났고, 또 금판이 감춰져 있던 팔마이라로 가는 길은 조셉 스미스와 그의 가족에게 감미로움과 빛으로 가득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사진: 조지 앤더슨, 교회 역사 박물관 제공



## 매튜 에스 홀런드

이 기사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관해 두 차례에 걸쳐 다루는 연재물의 첫 번째 기사이다. 두 번째 기사인 “물몬경의 출현”은 다음 달 리아호나에 게재될 예정이다.

**이** 점을 분명히 아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전임 선교사인지 아닌지에 상관 없이 모든 후기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온 세상”(마태복음 24:14)에 전파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복음의 순수한 원리와 교회 조직에 대한 관행을 함께 나누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데에서 우리는 조셉 스미스가 주님의 도구로서 그러한 순수한 원리와 교회 조직의 회복에 쓰였다는 점에 대해 가르치고 간증하는 것이 필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이때에 여러분이 분명한 확신과 기쁜 마음으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서, “일천팔백이십 년 이른 봄 아름답고 맑게 갠 날 아침”<sup>1</sup>에 조셉 스미스가 한적한 숲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는 것과, 세상은 다시는 전과 같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선언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은 매우 현명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과 같이 되고자 한다면, 그런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생애를 진지하게 연구하겠다고 지금 결심하십시오. 조셉 스미스의 삶에는 구주의 생애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의 삶에서도 볼 수 없는 힘과 지혜가 있습니다. 진실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셉의 삶을 상세히 알아 간다면, 그에 대한 존경과 애착이 깊어지는 것을 느낄 것이며, 특히 살아가면서, 또한 봉사로 힘든 시기를 보낼 때 위안과 격려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세상의 증거들이 조셉은 그가 주장하는 그런 인물은 아니었음을 증명한다고 너무도 굳게 확신하는 현대 비평가들의 조롱에 맞서도록 조셉 스미스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가 한층 배가될 것임을 약속합니다.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정말 비범했던 사람인 조셉에 대해 조금이나마 살펴보도록 합시다.

## 고통의 길

첫번째 시현의 아침이 찬송가 “조셉 스미스의 첫 번째 기도”<sup>2</sup>에 그려지듯이 영화롭고 평화로웠을 것이라 믿을 만한 이유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런 아름다운 광경을 마음속에 그려 볼 때, 우리는 그 아침이 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조셉 일세는 성년 시절의 대부분을 보내며 살아 왔던 가족과 친구, 또 농장이 있는 32킬로미터 반경을 벗어나, 남서쪽으로 482킬로미터나 떨어진 뉴욕 북부의 팔마이리로 향했습니다.

상점에서는 대량의 재고품에 대한 대금 상환 만기일이 임박했습니다. 상환을 요구하는 채권자들이 들이닥치면서, 스미스 가족은 심각한 상황에 몰렸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루시는 수년간 아껴 온 1,000달러 상당의 결혼 패물을 내놓았고, 조셉은 텀브리지에 있는 가족 농장을 팔아 800달러를 받았습니다.<sup>6</sup> 농장은 미국 초기의 험난했던 미개척 사회에서 적어도 약간이나마 경제적인 안정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는 물리적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이렇게 무일푼에 땅도 없어진 스미스 가족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신성하고 기이한 순간이 일어난 장소인 팔마이리로 가는 길은 이 소년 선지자와 그의 가족에게 감미롭지도 않았고, 빛으로 가득한 길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의 부모인 조셉 스미스 일세와 루시 맥 스미스는 1796년에 미국 버몬트 주 텀브리지에서 결혼했습니다. 6년간 그럭저럭 성공적인 농작을 한 스미스 가족은 소매점 일을 해 보려고 가까운 랜들프로 이사했습니다.<sup>3</sup>

보스턴에 거점을 둔 채권자들의 도움으로 조셉 일세가 매입한 상품은 새로운 고객들에게 빠르게 팔려 나갔습니다. 다만 현금 거래가 아닌, 추수를 한 뒤 갚기로 한 외상 거래였습니다.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기 위해 약속된 외상값을 기다리던 조셉 일세는 새로운 투자 기회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에 중국 시장은 인삼 뿌리의 수요가 많았습니다. 조셉 일세는 그가 수집하고 출하 준비를 한 인삼 뿌리를 현찰로 3,000달러에 사겠다는 중간상의 제의를 받았으나, 더 위험하긴 하지만 잠정적으로 이익이 더 크게 남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는 상품을 직접 뉴욕으로 가져가 자신의 상품을 중국에서 위탁 판매하도록 선장 한 사람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중간상을 배제함으로써 당시로는 상당한 금액인 4,500달러의 수입이 예상되었습니다.<sup>4</sup>

불운이었는지, 사악한 계책 때문이었는지, 조셉 일세가 선적한 화물은 결국, 전에 사업 제의를 거절했던 중간상의 아들이 탄 배에 실렸습니다. 그 중간상의 아들은 상황을 악용하여 중국에서 인삼을 “고가에” 팔았으며, 사업이 망했다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서 차가 가득 든 상자 하나만 내주고는 수익금을 몽땅 가로챘습니다.<sup>5</sup>

한편, 조셉 일세가 이러한 사기를 당하는 사이에, 스미스



계속해서 가족의 생계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 14년간 여덟 차례나 이사를 다녀야 했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하게 된 여러 원인 중 하나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는 1813년에 유행한 장티푸스에 스미스 가족의 모든 자녀들이 전염되어 치료비가 누적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셉은 열이 내리고 몇 주 후에 어깨에 엄청난 고통을 느꼈습니다. 의사는 그 고통의 원인을 염좌로 오진했습니다. 2주 후에 고통이 극심할 정도로 악화되었을 때, 그 의사가 돌아와 조셉의 오랫동안 지속된 발열과 관련된 감염 부위를 찾아냈습니다.<sup>7</sup>

끓은 부위를 도려 내자 고름이 1리터가량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술도 완벽하지 못해 감염이 새로이 왼쪽 다리로 옮겨갔습니다. 이 새로운 감염 때문에 결국 외과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무릎에서 발목까지 20센티미터 가량을

조셉 스미스가 팔마이이라에  
도착했을 때 주님은 더없이  
귀중한 보물이 실제로 감춰진  
근방의 산으로 예임된 선지자를  
데려가셨습니다.



절개했고, 그 덕에 고통은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감염은 뼈에까지 번졌습니다.<sup>8</sup>

이때 가족들은 다투머스 의과 대학의 최고 권위자들에게 최신 의료 자문을 구했습니다. 루시는 가장 논리적이고 관례적인 시술인 다리 절단만은 하지 말자고 고집했습니다. 그 대신에, 스미스 가족은 성공 보장이 없는 새롭고 고통스러운 시술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의사들은 조셉의 다리를 절개하여 뼈 양쪽에 구멍을 뚫기로 했습니다. 그런 다음, 감염된 모든 부위를 제거하기 위해 뼈를 크게 세 부분 도려냈습니다.<sup>9</sup>

주었습니다.”<sup>11</sup> 다행히도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조셉은 그 후 3년간 목발을 짚고 살았습니다.

이 혹독한 시련이 있은 후 가족은 버몬트 주 노르위치에서 새 출발을 함으로써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안정과 번영이 마침내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임대한 농지에 농사를 지어 보려 시도했으나 첫 해는 흉작이었습니다. 이듬해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년째인 1816년에 조셉 스미스 일세는 형편이



이 모든 수술 과정은 현대의 일반적인 마취 과정 없이 행해져야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의료진은 가족에게 조셉이 까다로운 수술 과정 동안 고통으로 몸을 움직이지 않도록 술을 먹이거나 침대에 묶도록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아직 어린 일곱 살의 소년이었던 조셉은 두 가지를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 대신, 두 가지를 요청했는데, 하나는 아버지에게 자신을 잡아 달라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어머니에게 방에서 나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sup>10</sup>

조셉의 울부짖음이 극심해졌을 때 어머니는 밖에 있지를 못하고, 그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방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그때 본 조셉의 모습은 그녀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각인되었습니다. 피로 젖은 침대에 누워 있는 조셉은 “시체처럼 창백하게, 얼굴에는 …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려, 모든 모습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을 보여

나아질 수 밖에 없다고 믿으며 한 해만 더 애써 보기로 결심했습니다.<sup>12</sup>

1815년, 지구 반대편의 인도네시아 탐보라 산이 폭발하면서 지구 대기 중으로 엄청난 재를 분출했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기후 주기에 지장을 주었습니다. “여름이 없었던 해”란 별명인 불은 1816년 6월부터 8월 사이, 뉴잉글랜드에는 네 차례나 서리가 내려 다시 한 번 여름 작황을 망쳐 놓았습니다.<sup>13</sup>

기근이 시작되자 수천 명이 한꺼번에 버몬트 주를 떠났고, 조셉 일세는 지금까지보다 더욱더 운명적인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년 시절의 대부분을 보내며 알아 왔던 가족과 친구, 또 농장이 있는 32킬로미터 반경을 벗어나, 남서쪽으로 482킬로미터나 떨어진 뉴욕 북부의 팔마이이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땅이 비옥하고 장기 용자 또한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조셉 일세가 먼저

떠났고, 루시와 팔 남매는 남아서 살림살이를 챙겨 뒤를 따랐습니다.<sup>14</sup>

추운 겨울에 루시와 용감한 어린 자녀들은 가진 모든 것을 썰매에, 그리고 나중에는 마차에 옮겨 실었습니다. 몇몇 채권자에게 빚을 갚고 나자 루시에게는 여비조차 거의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여정이 끝날 무렵, 루시는 옷가지와 약으로 여관비를 갓았습니다. 그녀는 팔마리아에 도착했을 때 남은 “현금은 겨우 2센트”뿐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sup>15</sup>



팔마리아로 가던 중에, 썰매를 끌도록 고용되었던 사람은 같은 방향으로 가던 게이트 가족의 예쁜 두 딸을 태우겠다고 어린 조셉을 압박해서 내리게 했습니다. 아직 완치되지 않았던 조셉은 “6일간 매일 64킬로미터씩 눈 위를” 다리를 절며 걸었습니다. 조셉은 그때의 경험을 “가장 극심했던 피로와 고통”<sup>16</sup>의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셉의 헌신적인 형들인 엘빈과 하이럼이 조셉을 태워 달라고 간청하자, 그는 채찍 손잡이로 그들을 때려 땅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유틀카에서, 루시에게 현금이 바닥난 것이 분명해지자 그는 마차를 훔치려고 루시 가족의 짐을 길바닥에 모두 버렸지만, 그 시도가 실패하자 루시의 가족을 버려두고 떠났습니다.<sup>17</sup> 우여곡절 끝에 가족은 모두 안전하게 팔마리아에 도착했고, 조셉 스미스 일세의 팔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쩌면 이 여정에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은 나중에 조셉이 가족 여행을 기록한 원고에 덧붙인, 잘 알려지지 않은 이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가는 길에 유틀카에서 나를 일행의 마지막 썰매에 타고 가도록 남겨 놓았다. 그런데 썰매가 왔을 때 썰매를 몰던 게이트 가족의 한 아들이 나를 때려눕혔다. 그리고는 나를 피가 흐르는 채로 땅바닥에 뒹굴도록 내버려 두었다. 한 낯선 사람이 와서 나를 태워 팔마리아까지 데려다 주었다.”<sup>18</sup> 이 일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 더없이 귀중한 보물

팔마리아 중심부에서 남쪽으로 3킬로미터 떨어진 곳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장엄한 시현이 일어난 나무 숲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5킬로미터를 더 가면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금판이 묻힌 쿠모라 산이 있습니다.

조셉이 팔마리아에 도착했을 때 주님은 예임된 선지자를 더없이 귀중한 보물이 감춰져 있는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이 보물은 수세기에 걸친 보편적인 영적 암흑과 혼란이 끝나고 하늘이 다시 열렸음을 알리는 증표가 될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성역이 교리 및 지리적인 측면에서 그 시대의 기독교 교회들이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했다는 것을 보여 줄 것이었습니다. 이 보물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식으로 시간과 언어와 대륙에 구애됨이 없이 인간사에 전면적으로 관여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물은 참으로 순수하고 강력한 가르침을 전해 주어, 그것을 영혼에 깊이 심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과, 몹시 감미로워 사람이 소망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이고 필적할 바 없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임을 약속해 줄 것이었습니다.

필멸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런 인물과 그런 순간에 더 어울리는 길은 더 안락하고 효율적이며 찬사가 따르는 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소년 이 시기에 이 마을에 들어오으로써 일어나게 될, 세상을 흔들여 놓을 사건을 기리기 위해, 천 년도 더 되는 세월 전에 금판을 땅 속에 묻도록 참으로 주의 깊게 연출하신 주님께서 더 평탄하면서도 더 안락하고, 예고된 여정을 제공하실 수는 없었을까요?

팔마이라에서 남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인류 역사상  
가장 장엄한 시험이 일어난  
나무 숲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으셨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소년에게는 그 유명한, 예언된 기름 부음도 없었습니다.(사무엘상 16:11~13 참조) 조셉에게는 약속의 땅으로 향하도록 지시하는 꿈도 없었습니다.(니파이전서 5:4~5 참조). 그의 가족이 길을 따라가며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도움이 될 신묘한 리아호나도 없었습니다.(니파이전서 16:10; 엘마서 37:38 참조) 햇빛 밝은 날, 연도에 승리의 개선을 환영하는 인파들의 환호로 시끌벅적한 가운데 무개차 리무진을 타고 축하를 받으며 들어오는 길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셉과 가족 앞에는 불행과 질병, 미숙한 판단, 자연 재해, 극심한 고통, 부당한 냉담함, 명성과는 거리가 먼 삶, 한결같은 가난으로 점철된, 굶이굽이 돌아가는 슬픔의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미스 가족에게 극도로 비참한 삶만 계속 이어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팔마이라로 가는 길은 평탄한 길도 아니었고, 순조롭거나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어떤 특별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축 처진 채, 절뚝거리며 피로 물든 선지자는 말 그대로 이름없는 낮은 사람의 손에, 비할 바 없는 운명을 마주할 장소로 실려 와야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조셉 스미스의 삶과 물몬경 출현에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교훈일지 모릅니다. 실패와 재난,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일을 생각해 볼 때, 바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조셉 스미스는 그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꼭 있어야 할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이나 미래의 어느 날, 주위를 둘러볼 때, 여러분은 일자리를 잃었는데 여러분보다 덜 헌신적인 다른 지인이 세상적으로 성공을 할 때, 정말 중요한 순간에 큰 병에 걸려 일을 망치게 되었을 때, 유망한 직책에 다른 사람이 승진할 때, 일부 동료들이

여러분보다 언어와 토론에서 더 빠르게 발전하는 듯이 보일 때, 좋은 의도로 한 행동이 동료나 와드 회원, 구도자와 여러분의 관계를 영망으로 만들어 버릴 때, 여러분이 어찌지 못할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소식을 집에서 보내올 때, 자신이 마치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만들어진 선교 드라마에서 특징 없고 지친 단역 배우처럼 느껴질 때,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약 2,000년 전에 골고다와 동산 묘지에 있었던 사건들 이래 지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날 무대로 인도되었던 그때, 조셉 스미스가 것처럼 많은 일을 겪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 삶과 지상에서의 운명이 선지자 조셉과 똑같은 수는 없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중요하며, 여러분과 여러분이 만나게 될 모든 사람의 영원한 잠재력이 선지자 조셉보다 덜 위대하거나 덜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조셉처럼, 전반적인 삶 또는 특히 선교 사업이 매우 고통스럽거나 혼란스럽거나 침체될 때, 절대로 포기하거나 굴복하거나 멈춰서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로마서 8:28; 강조체 추가)

하나님께서 어린 조셉 스미스에게 하셨듯이 여러분이 마지막날에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게 되도록 매일 여러분을 조각하며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

2014년 2월 15일,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 영적 모임에서 전한 “The Making of the Book of Mormon, Joseph Smith, and You”에서 발췌함. 매튜 에스 홀런드는 유타 밸리 대학 총장이다.

|  |  |  |  |
|--|--|--|--|
| <p>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셉 스미스—역사 1:14.</li> <li>2. 찬송가, 24장.</li> <li>3. 루시 맥 스미스, <i>Biographical Sketches of Joseph Smith, the Prophet, and His Progenitors for Many Generations</i> (1853), 37, 45 참조. 스미스 가족의 팔마이라 이주와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 간결하게 요약된 책을 보려면 다음 문헌을 참조한다. 리차드 라이만 부시맨, <i>Joseph Smith: Rough Stone</i></li> </ol> | <p><i>Rolling</i> (2005), 17~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루시 맥 스미스, <i>Biographical Sketches</i>, 49 참조.</li> <li>5. 루시 맥 스미스, <i>Biographical Sketches</i>, 49~50 참조.</li> <li>6. 루시 맥 스미스, <i>Biographical Sketches</i>, 51 참조.</li> <li>7. 루시 맥 스미스, <i>Biographical Sketches</i>, 60, 62 참조.</li> <li>8. 루시 맥 스미스, <i>Biographical Sketches</i>, 62~63 참조.</li> </ol> | <p>9. 리로이 에스 위슬린, “Joseph Smith’s Boyhood Operation: An 1813 Surgical Success,” <i>BYU Studies</i> 21, no. 2 (1981): 146~54 참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 루시 맥 스미스, <i>Biographical Sketches</i>, 64 참조.</li> <li>11. 루시 맥 스미스, <i>Biographical Sketches</i>, 65.</li> <li>12. 루시 맥 스미스, <i>Biographical Sketches</i>, 66 참조.</li> <li>13. <i>Church History in the Fulness of</i></li> </ol> | <p><i>Times</i>, 2nd ed. (2003), 24 참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4. 루시 맥 스미스, <i>Biographical Sketches</i>, 67 참조.</li> <li>15. 루시 맥 스미스, <i>Biographical Sketches</i>, 68, 70.</li> <li>16. 조셉 스미스, <i>The Papers of Joseph Smith</i>, ed. 던 씨 제시, 2 vols. (1989), 1:268.</li> <li>17. 조셉 스미스, <i>The Papers of Joseph Smith</i>, 1:268~69.</li> <li>18. 조셉 스미스, <i>The Papers of Joseph Smith</i>, 1:268~69.</li> </ol> |
|--|--|--|--|



구조를  
기다리며

## 코니 굴딩

**20** 10년 8월 5일, 칠레에 있는 광산 내부의 바위가 붕괴되는 대형 사고로 33명의 광부가 갇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땅속 700미터에 있는 수직 갱도와 비좁은 안전 구역뿐이었다.

상황은 비관적이었다. 광부들은 머리 위에서 꿈쩍도 하지 않는 약 800미터가량의 바위 때문에 가족과 집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약간의 물과 식량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지식과 장비가 있기는 했지만, 광산의 불안정성 때문에 목숨을 구할 어떠한 시도도 할 수 없었다. 유일한 희망은 발견되어 구조되는 것뿐이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들은 체계를 세우고 물과 식량을 분배한 후, 기다렸다. 그들은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렇지만 어둠 속에서 기다리며 그와 같은 희망을 붙들고 있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 날이 지나고, 몇 주가 흘러 버렸다. 공평하게 분배한 식량도 떨어졌다.

나 역시 인생에서 엄청난 재난을 겪은 바 있다. 귀엽고 쾌활한 여덟 살 난 아들이 바로 눈 앞에서 자동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길 위로 아이의 피가 흐르고 아이의 영이 빠져나가 하늘 본향으로 돌아갈 때, 나는 아이의 시신을 붙들고 있었다. 아이를 살려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했지만, 아들의 인생은 그렇게 계획되어 있지 않았다.

나는 슬픔의 무게에 눌린 채, 어두운 절망 속에서 길을 잃었다. 지쳤고, 안식은 불가능했으며, 필멸이라는 명제로 이해력이 흐려졌다. 상한 마음이란 실재하는 육체적인 느낌임을 알게 되었다. 따뜻한 감정이 있던 자리에는 몹시도 고통스럽고 어두운 공허감만 남았다.

나는 힘을 내어 이 국면을 이겨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많은

**칠레에서 광산이 붕괴되면서 33명이 갇혀 버린 일처럼, 우리 역시 자신이 나약함과 시련에 갇혔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의 계획을 통해 구조의 희망을 찾을 수 있다.**

사람이 이보다 더한 고통을 겪는다. 하지만 나는 꿈쩍도 하지 않는 바위에 갇힌 광부들처럼 내 슬픔의 무게를 들어 올릴 수가 없었다.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면에서 갇혀 있다고 느낄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개인적 시련이나 나약함, 혹은 인생의 어려운 상황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슬픔과 괴로움을 경험하는 필멸의 삶이 우리에게 더 강하게 성장하는 시기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 위로가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얻는다.

### 희망의 빛

광부들의 시련이 계속된 지 17일째 되던 날, 희망이 되살아났다. 드릴의 날 하나가 그들을 가두고 있는 바위를 뚫어 작은 수직 갱도를 만들어 낸 것이다.

갇힌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직 살아 있음을 지상의 구조자들에게 알리고자 드릴의 날을 두들겨서, 빨간 매직펜으로 쓴 쪽지를 그 끝에 매달았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Estamos bien en el refugio, los 33.*(우리는 대피 구역에 무사히 있어요, 33인.)” 희망이 되살아났다. 마침내 광부들이 발견되었다.

오렌지 크기쯤 되는 작은 구멍을 통해 지상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 물과 식량, 의약품, 사랑하는 사람들의 편지가 수직

갱도를 통해 대피 구역에 있는 광부들에게 전해졌다.

자신들의 상황을 깨닫게 되면서 광부들은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다. 발견되었다는 사실로 기쁨과 위안이 넘쳤지만, 상황은 여전히 위태로웠다.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땅속 사람들의 위치를 알더라도 구조 계획을 실행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었다. 그저 구조 계획이 성공하기를 바랄 수 밖에 없었다.

구조대는 광부들을 지상으로 데려오기까지 여러 달이 걸릴 수 있음을 광부들에게 주지하며 알렸다. 그들은 성탄절까지 광부들을 가족의 품으로 데려다 주고자 했는데 그것은 광부들이 넉 달을 더 땅속에 갇혀 있어야 함을 뜻했다. 그러나 이제 광부들은 희망을 품고 기다렸다.

우리에게도 희망의 빛이 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위한 구조 계획이 수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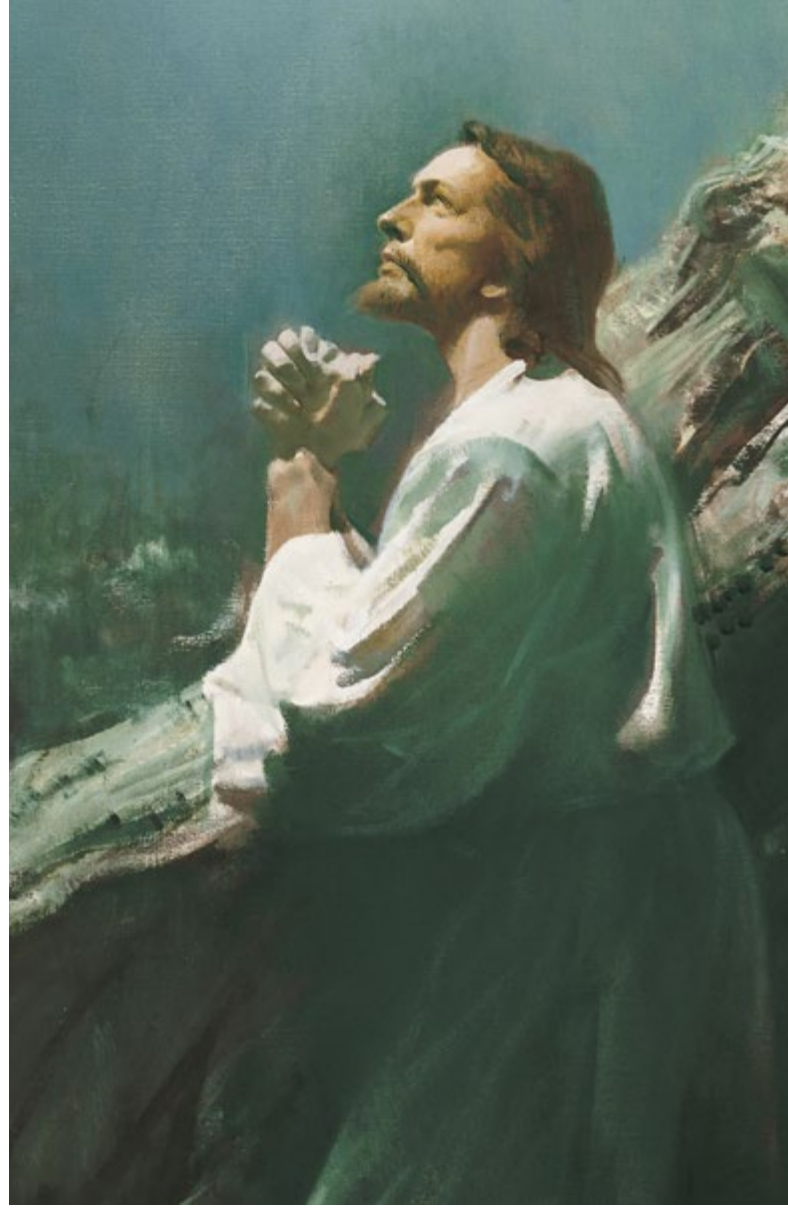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죽음과 죄와 약함, 그리고 이 생에서의 모든 고통에서 구해 주실 구주를 마련하셨다. 그분은 희망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구주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서 먼저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닦아 주셨다. 또 곁에 서서 우리가 지는 무거운 짐을 들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며, 평강을 안겨 주신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그분께서 세우신 계획을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를 본향으로 데려다 주고자 이곳에 오셨다.

## 구조

광부들을 구조하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앞서 광부들을 찾고자 뚫었던 작은 시험 구멍 중 한 구멍을 따라 단 하나의 드릴만이 바른 길을 통해 들어갔다.

광부들은 그들 자신이 구조되는 동안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다. 그들을 구하러 드릴이 계속해서 암반을 두드리며 들어올 때, 더 작은 수직 갱도 아래로 바위가 떨어져 광부들이 갇힌 동굴 안에 쌓였다. 광부들은 더 큰 드릴이 들어올 길을 터 주며, 무너져 내린 바위를 치웠다.

구조대는 소형 캡슐을 만들어 케이블을 이용하여 좁은 수직



**우리는 각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앞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켜야 한다. 우리에게서 오직 단 하나의 구조 계획만 있을 뿐이다. 그것은 그분의 속죄 희생 안에 있으며, 구조는 그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구하고자 만물 아래로 내려가셨다.**

갱도 아래로 내려 보냈다. 구조 캡슐은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정도의 크기였다. 캡슐은 단단한 700미터 암반을 따라 파놓은 수직 갱도보다 겨우 10센티미터 정도 더 작은 크기였다.

구조될 순간이 왔을 때, 광부들은 각자 선택을 해야 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캡슐에 올라 홀로 올라가야 했다. 이 계획을



신뢰하기로 한 사람은 캡슐이 균형을 잃어 중간에 막혀 버리는 일이 없이, 좁다란 수직 갱도를 따라 곧바로 올라가기만을 바라야 했다.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희망은 사라질 것이었다. 각 사람은 캡슐에 올라타며, 자신의 뜻을 그 계획과 구조대에게 맡겼다.

광부들은 한 사람씩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하여 올라가는 외로운 여행길에 올랐다. 온 세상 사람이 환호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 안겼다.

구조 계획은 성공했고, 단 한 명도 잃지 않았다. 광부들이 구조된 날은 2010년 10월 13일로, 광산이 무너진 지 69일 만이며, 광부들의 생사를 확인한 지 52일째 되는 날이었다.

###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한다

광부들이 그랬듯이 우리의 구조도 개별적인 것이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지만, 우리와 구주의 관계는 매우 개인적인 것이다. 우리는 각자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앞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켜야 한다.

이 필멸의 삶은 영원한 존엄성이 있는 인간의 선택의지라는 토대 위에 세워졌으므로, 구주께서는 우리의 뜻을 박탈하실 수 없다. 우리에게는 선택할 자유가 있다. 구주께서는 우리 곁에 서서 상처를 치유하고 영원한 구원으로 들어 올려 주고자 기다리고 계시지만, 구주께서는 우리가 원해야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다. 우리가 그분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오직 단 하나의 구조 계획만 있을 뿐이다. 그것은 그분의 속죄 희생 안에 있으며, 그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구하고자 만물 아래로 내려가셨다.

나의 구조는 아들의 죽음으로 슬픔에 잠겨 무릎을 꿇고 있을 때 찾아왔다. 캡슐에 오르는 광부들처럼 나는 중대한 기로에 섰다. 나의 힘과 지식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손을 내밀어 도움을 청해야 하는가?

나는 비탄의 무게에 눌린 채, 하나님께 돌이키기로 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호소하며 내가 얼마나 지쳤는지 말씀드리고 이 서글픔의 무게를 들어 올려 주시기를 간구했다. 다시 일어서기도 전에 내 양 어깨를 누르던 슬픔의 짐이 사라졌다. 여전히 고통과 상실감을 헤쳐 나가야 했지만, 감당할 수 없는 무게는 날아가 버렸다.

바로 그 순간, 나는 구주께서 곁에 서서 우리를 들어 올려 주려 기다리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다만 우리가 그분께 간구하기를, 우리 짐을 그분 어깨에 내려놓기를, 우리 손을 그분 손에 올려놓아 그분이 우리를 구할 수 있게 하기를 기다리신다.

캡슐 문을 닫겨 닫고서 구조대를 신뢰했던 광부들처럼, 우리도 구주의 뜻에 따르기로 하며 우리를 위한 그분의 계획을 신뢰해야 한다.

나에게는 이생에서 다음 생으로 외로운 여행을 하게 될 때 나보다 앞서 떠난 사람들과 재회하며 기쁨을 누리리라는 희망이 있다. 한편, 나는 구주께서 살아 계시며, 나를 사랑하고 내 곁에 서 계신다는 것을 안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 구주의 속죄는 우리를 들어 올릴 수 있다

“여러분의 길이 힘들 때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합니다. 일어서서 우리 구속주, 구주의 발자취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뒤를 돌아다보며 속죄에 대한, 그리고

여러분을 들어올리고 힘을 준 속죄의 힘을 신뢰하기로 한 자신의 선택에 대한 영원한 감사로 마음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제일회장단 제2보좌,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이제는 할 수 있어요!” 리야호나, 2013년 11월호, 57쪽.





# 영광스러운 신권 회복의 날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와 신권을 지상에 회복하셨다는 것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합니까!

**저**는 모든 신권 소유자들이 1829년 5월 15일을 교회 역사의 성스러운 날로 기억하길 바랍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셨을 때 하신 첫 번째 일은 그분의 교회를 조직하신 것이었습니다. 신약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튿날, 산에서 내려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중에서 열둘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누가복음 6:12~13).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산에 올라가셨고, 거기서 베드로는 신권의 열쇠를 받았습니다.(마태복음 17:1~9 참조; 또한 16:18~19 참조) 베드로는 구주께서 떠나신 후에 지상에서 교회를 이끌 모든 열쇠를 지닐 책임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명에 순종하여(마가복음 16:15 참조)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의 지부들을 조직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들은 지부들을 방문할 기회가 단 한 번밖에 없었고, 그 때문에 가르치고 훈련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교도적인 개념들이 스며들었습니다. 구주의 교리의 여러 다른 요소들이 변화되고 수정되었습니다.(이사야서 24:5 참조) 배도가 널리 퍼져, 주님께서 신권을 지상에서 거두어 가셔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상에는 오랫동안 신권의 축복이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지상에 신권 권능으로 주님의 왕국을 다시 세우기 위해 주님께서 복음을 회복하셨습니다.

## 회복을 기억하십시오

조셉 스미스가 물문경을 번역하고 올리버 카우드리가 그의 서기로서 일하던 시절, 그들은 부활하신 구주께서 서반구를 방문하신 이야기를 제3니파이에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침례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을 알게 된(제3니파이 11:23~28 참조) 그들은 당시에 시행되던 많은 침례 형태에 관해, 또한 누가 침례를 베풀 권세가 있는가에 관해 알고 싶어졌습니다.

조셉과 올리버는 주님께 간청해 보기로 결정하고 조셉과 에머의 집 근처에 있는 숲에서 기도했습니다. 그곳에서 위대한 계시가 주어졌는데, 그곳에 나타난 침례 요한은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동역자 된 종들인 너희에게 메시야의 이름으로 나는 아론 신권을 부여하노라. 이는 천사의 성역, 회개의 복음 그리고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의 열쇠들을 지니고 있나니, 이것은 레위의 아들들이 또다시 의롭게 주께 제물을 바칠 때까지 결코 다시는 땅에서 거두어지지 아니하리라.”(교리와 성약 13:1)

영광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모든 신권 소유자들이 1829년 5월 15일을 교회 역사의 성스러운 날로, 그리고 전 세계 역사에서도 가장 특별한 사건으로 기억하길 바랍니다.

신앙개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언에 의하여 또 권세 있는 자에 의한 안수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아야 [한다].”(신앙개조 제5조)

남성들의 부름은 임의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언과 계시로 부름받습니다. 신권을 행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에게에는 주님에게서 직접 주어지는 영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다스리시는 방법이며,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부르셨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 신권을 지니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십시오

신권을 받는 것은 나이에 따라 자동으로 주어지는 통과 의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합당해야 하며, “충실하여 ... 이 두 신권을 얻어야” (교리와 성약 84:33) 합니다. 우리는 멜기세덱 신권의 맹세와 성약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하는데, 거기에는



신권을 받기 위해 우리가 이해하고 동의해야만 하는 조건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모두 내 아버지의 이 맹세와 성약을 받아들이는 것이니, 이를 그가 깨뜨리실 수 없고 또 이는 옮겨질 수도 없는 것이니라. 그러나 누구든지 이 성약을 받아들인 후에 깨뜨리고 이것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자는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도 죄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교리와 성약 84:40~41)

이것은 아주 중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아론 신권과 멜기세덱 신권을 받는 것을 기피하리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음 구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받은 이 신권에 나아오지 아니하는 자 모두에게 화 있을지어다.”(교리와 성약 84:42)

신권을 받아들이고 그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우리는 주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약을 깨뜨리고 신권으로부터 등을 돌린다면, 주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며, 또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교리와 성약 84:34)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성약으로 받게 되는 아론 신권은 청남들이 맹세와 성약으로 받게 되는 더 큰 신권인 멜기세덱 신권을 받을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봉사하여 다른 사람을 도우십시오

신권은 훌륭한 조직입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조직일 것입니다. 신권 형제들간의 관계는 각자의 가족 관계를

제외한 그 어떤 관계보다도 더 훌륭해야 합니다. 신권은 조직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개선을 위해 우리 자신을 바치는 봉사 단체입니다.

청남은 아론 신권을 받고 집사나 교사 또는 제사에 성임될 때부터 정원회에 속하게 됩니다. 그 정원회 조직은 벨기세텍 신권을 받고 장로에 성임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신권에서 정원회는 필수적입니다.

최근에 선교 사업을 나가며 성찬식에서 말씀을 전한 한 청남이 있습니다. 그는 집사 정원회 시절부터 네 친구와 함께 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할 때나 아론 신권의 다른 직분으로 올라갈 때 서로에게 보여 준 우정과 지지 덕분에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는 목표에 이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정원회입니다. 직업과 경력 면에서 모두 다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원회로서 행할 때 우리는 목적에서 하나가 됩니다.

정원회 회원들이 만장일치로 성신의 영향력 아래 함께 따르고 실천하기로 동의할 때 그들은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정원회 회원들의 완전한 동의가 없는 한 일을 진행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일생을 통해 여러분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신권은 훌륭한 조직입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조직일 것입니다.**

모든 정원회 지도자는 자신의 정원회 회원 명단을 갖고 있어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원회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남들이 많이 속해 있다면, 지도자는 가장 급하게 도움을 주어야 할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며 자신의 명단에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런 다음, 지도자와 다른 정원회 회원들이 그들을 방문하기 시작하고, 다시 우리의 유대 안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친구가 되어 주고 정원회에 속할 수 있게 합니다.

신권 정원회는 “경고하고, 해설하며, 권면하며, 가르치며,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권유해야”(교리와 성약 20:59)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신권 정원회에서 봉사는 이 지상에서 발전을 이룩하는 데에서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정원회 회원은 이 의무를 하늘 아버지의 왕국에서 행하는 봉사 의무의 일부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필멸의 시험 기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위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이끌고 인도해 줄 확실한 계획과 확고한 방향, 또는 명확한 지도가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대로 기능하는 정원회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돌아갈 계획과 지도를 만들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 감사하십시오

감독은 아론 신권을 소유한 청남을 포함하여 와드를 감리할 신권 열쇠를 지닙니다. 사실 감독은 와드의 제사 정원회 회장입니다. 감독은 청남들이 합당하도록 도움으로써 아론 신권을 받고 진급을 하고 벨기세텍 신권을 위해 준비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감독은 청남들이 신권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의무와 축복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감독은 청남들에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데 도움이 될 임무를 지명함으로써 신권을 영화롭게 하는 법을 배우도록 돕습니다.

아론 신권에 속한 열쇠는 우리가 회복된 신권과 그 권능 및 권세, 그 책임에 대해 항상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소신권 곧 아론 신권의 권능과 권세는 성약과 계명에 따라 천사의 성역의 열쇠를 지니며, 외형적 의식 곧 복음의 조문과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침례를 집행하는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107:20)

청남 여러분에게 권유하건대, 자신이 지닌 신권을 영예롭게 하고, 벨기세텍 신권을 받아 더 많은 축복을 누리기 위한 준비로서 아론 신권의 각 직분으로 진급할 준비를 하고, 전임 선교사로서 주님께 봉사하며, 마침내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결혼하도록 도전하십시오.

이 교회는 필멸의 인간이 인도하는 곳이 아님을 간증드립니다. 이 교회는 구주의 교회입니다. 지상의 인간에게 위임하시어 그분의 교회를 인도하고 그분의 대리인으로서 거룩한 의식을 집행하게 하심으로써, 구주께서 신권을 통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와 신권을 지상에 회복하셨다는 것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합니까! ■





# 제자의 길에 대한 구주의 가르침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여정이 나오는 누가의 기록을 보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케이지 더블유 올슨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

**돌** 아가시기 4개월 전에 구주께서는 “승천하실 기약이 차 가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또는 결연히] 결심하[셨다.]”(누가복음 9:51)<sup>1</sup>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전에 몇 주 동안, 앞으로 닥쳐올 어려움과 초월적인 영적 사건들에 대비하여 제자들을 신중하게 준비시키셨다.

한 예로, 베드로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간증했을 때 곧바로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고 명확한 말로, 곧 임박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알리셨다.(마태복음 16:13~21; 마가복음 8:27~31; 누가복음 9:18~22 참조)<sup>2</sup> 예수께서는 또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다.]”(마태복음 17:1~2) 그곳에서 구주와 모세, 엘리야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신권 열쇠를 부여했다. 모세와 엘리야는 또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며]”(누가복음 9:31)<sup>3</sup> 예수님을 위로하고 지지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임스 이 탈매지(1862~1933) 장로는 변형의 산 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 지상 성역의 “종말이 시작된 사건”이라고 언급했다.<sup>4</sup>

이러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을]” 때, 죽음으로 끝이 날 자신의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인지하셨음을 보여 준다. 이







### 구주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주신 가르침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마르다의 집에 들르셨다.(누가복음 10:38 참조)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누가복음 10:40) 반면에, 그녀의 자매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39절) 유대인 사회에서 환대는 매우 중요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일행을 맞아, 문화적으로 자신이 감수해야 할 손님 대접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려 했던 것 같다.<sup>9</sup>

비록 마르다가 다른 일화에서는 놀라운 헌신과 신앙을 보여 주지만(요한복음 11:19~29 참조), 이 이야기에서는 이런 불평을 늘어놓는다.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누가복음 10:40)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교회 회원들이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캐터린 콜만 페리 교수가 브리검 영 대학교 영적 모임에서 전한 말씀을 인용했다.

“주님께서 부엌으로 가셔서 마르다에게 음식 장만을 그만 두고 와서 들으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분명 주님께서서는 마르다가 다른 사람의 봉사를 판단하기 전까지는 그녀가 원하는 대로 자신을 섬기도록 그대로 두셨습니다. ... 주님께서 꾸짖은 것은 ... 마르다의 자만이지, 음식을 장만하는 분주함이 아니었습니다.”<sup>10</sup>

이 이야기에서 마르다의 주된 실수는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에게 초점을 두었다는 점인 듯하다. 구주께서는 단지 주님과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마르다를 도와주셨다. 우리는 봉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잊고 우리의 소망과 동기와 행동을 인도할,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누가복음 9:24; 교리와 성약 137:9 참조) 제자들은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을 극복하고 “[그분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며”(고리와 성약 88:67)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자녀들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나중에,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은 후에 구주께서 오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모든 것을 그냥 두고 구주를 맞으러 감으로써 집중된 신앙을 보여 주었다.(요한복음 11:19~20 참조)

### 구주께서 제자 됨의 조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시다

예루살렘을 향한 구주의 여정 후반부에 이런 간청을 한 사람이 있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누가복음 12:13) 예수께서는 그 사람이 가진 문제의 근원에 초점을 맞추어 대답하셨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누가복음 12:15) 그런 다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가르치셨다.(누가복음 12:16~21 참조)

이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 하신 한 가지 근거는 그 부자의 이기심이었다. 누가복음 12장 17~19절에서 부자는 *I*(나)와 *my*(나의)라는 단어(영어 흠정역 성경-웁긴이)를 11번 사용하며, 자기 자신에 대한 염려를 나타내 보였다.<sup>11</sup> 그 사람은 이기심에 사로잡혔을 뿐 아니라 자기 부의 원천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했다. 그는 구주와는 달리, “소출이 풍성[한]” 것은 “그 밭”(누가복음 12:16) 때문임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더러 소출이 나도록 땅을 창조해 주신 주님께 감사해하지도 않았다. 본질적으로 그 부자가 정죄받은 근거는 현세적인 양식을 저장한 현명한 처신 때문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은 데 있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했기]”(누가복음 12:21) 때문에 그 부자는 지상에 일시적으로



쌓아 놓은 보물뿐 아니라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누가복음 12:33)조차도 결국에는 박탈당하게 되었다. 이생에서 내린 선택 때문에 그는 영생에서 가난하게 되었다.

예기치 않은 죽음을 맞기 전에 물질적인 소유물을 비축하는데 골몰했던 그 어리석은 부자와는 반대되게, 예수께서는 자신의 생명과 의지 모두를 포함하여 자신이 가진 것과 존재 모두를 하나님께 본인의 의지로 바치며 자신의 죽음을 향해 과감히 나아가셨다.(누가복음 22:42; 모사이야서 15:7) 그분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다.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한겠느냐”(누가복음

이렇게 선언하셨다. “너희 중의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누가복음 14:33) 그렇더라도 구주께서는 또한 우리가 자신을 잊고 제자가 되는 길을 나아간다면 그 보답으로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누가복음 9:24) 구주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을”(교리와 성약 59:23) 얻게 되리라는 축복을 포함하셨다.

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걸어갈 기회는 없겠으나 자신의 삶에서 그 여행을 기꺼이 모방해 보려는 뜻을 나타내 보일 수는 있다. 구주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기꺼이 봉사하고 희생하려 하신 그 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가서 … 이와 같이 [행할]”(누가복음 10:37) 힘을 받게 될 것이다. ■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봉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잊고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12:50). 예수님께서 이미 물로 침례 받으셨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침례는 그분의 속죄를 뜻한다. 곧 그분은 모든 것 아래로 내려가실 것이며, 우리의 죄를 위해 고통을 겪고,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과 고난을 대신 경험하실 때 몸이 피와 땀으로 뒤덮일 것이었다.<sup>12</sup>

후에, 몇몇 바리새인이 예수께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가 그분을 죽이려 획책할 것이라 경고했으나 구주께서는 다만 계속 사람들을 가르치고, 축복하고, 치유할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으실 것임을 단언하셨다.(누가복음 13:31~33 참조) 그분께서는 지상 성역의 마지막 날들을 지난날들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보내실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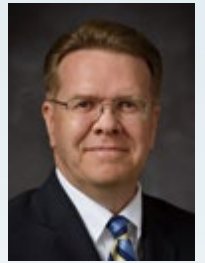
예루살렘에 가까워지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분을 따르겠다는 결심을 하기 전에 먼저, 제자가 됨으로써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 숙고해 보게 하셨다.(누가복음 14:25~28 참조) 그분께서는 그들이 계속하여 제자의 길을 갈 때 겪게 될 힘겨운 현실을 보기 좋게 꾸미길 원치 않으셨다. 오히려 주님은

**주**

1. A. B. Bruce, *The Training of the Twelve* (1971), 240 참조.
2. 구주께서 성역 초기에 자신의 수난과 죽음을 암시하신 성구. 마태복음 9:15; 16:4; 요한복음 2:19; 3:14
3. 제임스 이 탈매지, *예수 그리스도*, 제3판, 1988년, 373쪽.
4. 제임스 이 탈매지, *예수 그리스도*, 373쪽.
5. 마가와 마태가 구주께서 마지막으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행을 간단히 언급했던 것과는 달리(마태복음 19:1~2; 마가복음 10:1 참조), 누가는 이 여행에 비중을 두고 집중하고 있다.(누가복음 9:51~53; 13:22, 34; 17:11; 18:31; 19:11 참조) 요한의 복음서는 공관 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내용 면에서 상당히 다르며 구주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마지막 여행을 언급하지 않는다.
6. 제프리 알 홀런드, “불편을 겪으신 메시아,” *리아호나*, 1989년 3월호, 19~24쪽.
7. 유대 문화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부모의 장례를 제대로 해야 할 책임 또한 이에 포함된다. 가족은 장례를 위해 시신을 염하여 무덤에 둔 후, 일반적으로 1년 후에 돌아와 두 번째 장례로서 뼈를 유골 단지라 하는 돌 상자에 넣어 사망한 다른 가족들의 유해와 함께 둔다.(Richard Neitzel Holzapfel, Eric D. Huntsman, 및 Thomas A. Wayment, *Jesus Christ and the World of the New Testament* [2006], 78-79 참조) 만일 이 이야기에서의 제자가 최근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시신을 급히 수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장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었다면, 그의 요청은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며 가르침을 들을 돌도 없는 기회보다는 문화적 전통을 중시하려는 마음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8. 그리스도 시대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상당한 적개심이 있었다. 이들은 보통 서로 함께 어울리려 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관습적인 환대를 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Richard Neitzel Holzapfel 및 Thomas A. Wayment, *Making Sense of the New Testament* [2010], 140; Ralph Gower, *The New Manners and Customs of Bible Times* [1987], 241-42 참조)
9. Gower, *New Manners and Customs of Bible Times*, 244-45; Fred H. Wight, *Manners and Customs of Bible Lands* (1953), 69-77 참조.
10. Dallin H. Oaks, “Judge Not’ and Judging,” *Ensign*, Aug. 1999, 12-13; 강조제 추가.
11. Jay A. Parry 및 Donald W. Parry, *Understanding the Parables of Jesus Christ* (2006), 122 참조.
12. 누가복음 22:44; 앨마서 7:11~13; 교리와 성약 19:18; 88:6 참조.



# 사람을 낚는 어부



스코트 디 와이팅  
장로  
철십인

교회에서 사람들을 이끄는 부름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주님의 초대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 내와 저는 하와이에서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도움을 주었던 훌륭한 후기 성도들이 고마웠습니다. 이 사랑스러운 회원들은 우리를 가족처럼 받아들이고 대해 주었습니다. 워드 회원들은 여러 차례 제 어린 아들을 바다 낚시 모험에 데려가 주었습니다. 이 낚시는 배를 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하와이인들이 하던 옛날 방식의 고기잡이였습니다.

그 중 한 가지 형태를 소개하자면, 노련한 어부가 돌레에 추를 매단 둥근 그물을 꼼꼼히 접어 겹겹이 포갭니다. 어부는 맑은 물 웅덩이 위의 갯바위를 물색하고 그물을 조심스럽게 옮겨 갑니다. 고기가 웅덩이로 들어가면, 때를 맞춰 노련한 솜씨로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은 크게 원형을 그리며 활짝 펼쳐져 물위로 떨어지고, 금세 바닥으로 가라앉으면서 물고기들을 잡습니다.

어부의 그런 기술은 정말 인상적인데, 그 어부는 무엇보다도 그물을 깨끗하게 손질하고 수선해 두지 않는다면 어떠한 노력도 소용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노련한 어부는 성공 어부가 전적으로 고기잡이에 사용할 그물 상태가 온전한가에 달려 있으며,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고기잡이는 그물을 점검하고 정돈하지 않는 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는 초기 사도들이 이 원리를 이해했음을 볼 수 있는데, 사도 중 일부는 사실 어부였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서두에서 이들 어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그물을 던지고, 수선하고, 씻던 자리에서, 앞으로 자신들이 모시게 될 스승을 처음 만났습니다.(마태복음 4:18, 21; 마가복음 1:16, 19; 누가복음 5:2 참조) 이들은 매일 수고하여 물고기를 잡아 자기 가족과 다른 가족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들의 운과 가족의 생계는 그들이 한 준비와 기술, 그리고 그물 상태에 달려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 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마태복음 4:19, 20; 누가복음 5:11; 또한 마가복음 1:17~18 참조) 저는 이 모범에 대해 수없이 생각해 보면서, 교회를 이끄는 분들 역시 “나를 따르라”는 초대에 그와 같은 신앙으로 응하셨다는 점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고대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도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인도합니다. 그분들은 자신들의 그물과 힘들여 일군 직업을 버리고, 구주를 섬기고 따르기 위해 새로운 기술들을 계발해 오셨습니다.

## 사람의 지도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초기 사도들에게 전한 단순한 권유에서 구주께서는 자주 사용하시게 될, 강력한 형태의 가르침인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구주께서는 당신을 따르도록 부름 받은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것임을 아셨습니다.

해롤드 비 리(1899~1973)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사람의 지도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언어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 ‘내 계명을 지킨다면 너희로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가 되게 하리라’”<sup>1</sup>

사람의 지도자란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자”(모로나이서 7:48)가 될 수 있게 돕도록 부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를 위해 지도자는 우선 매일 살아가면서 구주의 충실한 제자가 되고자 노력하여 하나님 면전으로 돌아가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강한 간증을 키우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도울 수 있다.”<sup>2</sup>

교회에서 사람들을 이끄는 부름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주님의 초대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 그물과 평의회

교회의 가장 높은 지도력 단위에서 아론 신권 정원회와 청녀 반 회장단에 이르기까지, 지도자들은 평의회로서 조직됩니다. 지도자는 영적으로 준비하고, 평의회에 충실히 참석하며, 사람들에게 성역을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교회의 신권 및 보조 조직을 관리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또한, 지도자는 교회에서 단합과 조화를 증진하고, 사람들이 지도자와 교사가 되도록 준비시키며, 책임을 위임하고, 반드시 보고하도록 해야 합니다.<sup>3</sup>

초기 사도들이 고기잡이에 관한 지식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데 적용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들의 그물 사용에서 찾은 원리를 교회의 여러 평의회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물처럼, 평의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모으기 위해 조직되고 준비됩니다. 이때 평의회는 각 구성원은 중요하고 필수적인 그물의 한 가닥 한 가닥으로서 작용합니다. 그물은 잘 손질되었을 때에만 효과적인 것처럼, 구성원이 마땅히 해야 할 만큼 조직되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제 기능을 하지 않으면 평의회는 약해집니다.

평의회 지도자들은 이런 “그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선함으로써 고대 사도 어부들의 모범을 따릅니다. 평의회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훈련하고, 평의회 모임에서 앞장서서 이끌고, 평의회 회원들에게 시의적절하고 올바른 피드백을 주고, 사랑과 격려, 칭찬을 합니다. 평의회가



제대로 움직일 때 생겨나는 효과적인 힘과 집약적인 역량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되지 못합니다.

### 와드 평의회

교회의 각 회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기회가 있는 평의회는 와드 평의회일 것입니다. 이 평의회에 속한 남녀는 와드에서 감독의 지시에 따라 구원 사업을 이끌 책임을 받았으며, 그와 더불어 참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부름 받았습니니다. 그들은 와드 지역 내에 살며 봉사하기에, 그들이 이끌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과 알고 지내며 함께 어울릴 수 있습니다.

“와드 평의회 구성원은 개개인이 간증을 쌓고, 구원 의식을 받으며, 성약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헌신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돕기 위해 노력한다.(모로나이서 6:4~5 참조) 와드 평의회 구성원은 모두 와드 회원들의 복리에 대해 일반적인 책임을 진다.”<sup>4</sup>

와드 평의회 구성원들은 구원 사업을 서두르는 데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와드 평의회가 마땅히 해야 할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구원 사업은 느려집니다. “그물”의 모으는 역량이 약해지고, 평의회는 수고는 제한된 결과밖에 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와드 평의회가 조직적이고 개인과 가족을 강화하는 일에 역량을 집중하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효과적이지 못한 와드 평의회로 힘겨워 하던 한 와드를 알고 있습니다. 감독은 *지침서 제2권*에 나오는 지침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했는데, 자신의 방식에 익숙해져서 그대로 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은 스테이크 회장에 많은 조언과 훈련을 받고서 감독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회개하여, 지침에 따라 와드 평의회를 본격적으로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감독은 LDS.org에 나오는 훈련 비디오를 보고 *지침서 제2권* 4편과 5편을 읽고서 배운 대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와드 평의회 구성원은 곧 변화를 받아들였고, 개인과 가족을 강화하는 데 집중함에 따라 그들 위에 사랑과 단합의 영이 자리잡았습니다. 모든 모임에서 그들은 구도자와 새로운 개종자, 저활동 회원, 궁핍한 회원들에 대해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 형제 자매들에게로 이끌렸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 대열에 합류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성역을 베풀던 시기에 갈릴리에 있는 어부들을 불러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며 그물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부디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의 대열에 동참하여 무엇이든 우리가 줄 수 있는 도움을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구조해야 하는 우리의 책임”, *리아호나*, 2013년 10월호, 4쪽.

감독은 와드 평의회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자 거의 곧바로, 전에 알지 못했던 저활동 회원들이 교회에 참석하기 시작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회원들은 갑자기 교회에 돌아가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 번 성도들과 어울릴 필요가 있다는 분명하고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랑 받을 것이라는 것과, 회원들이 주는 도움이 자신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감독은 제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 저활동 회원들의 생각과 마음에 교회로 돌아와 활동하고 싶다는 소망을 심어 주시기 전에, 먼저 감독인 자신이 권고에 따라 와드 평의회를 지침대로 조직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을 나눴습니다. 감독은 영이 저활동 회원들을 이끌어 오기 전에 먼저 그 회원들에게 필요한, 사랑하고 보살피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감독의 말을 들으며 어부인 베드로의 경험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누가복음 5:3~6).

참된 “사람을 낚는 어부”인 현대의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들이 주는 권고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며, 또한 봉사하는 중에 우리의 그물을 점검하고 수선한다면, 구원 사업을 촉진할 우리의 역량은 크게 증가할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는 일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들린 도구로서 쓰일 것입니다. ■

### 주

1. Harold B. Lee, Conference Report, Oct. 1960, 125~131.
2.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 (2010), 3.1.
3. *지침서 제2권*, 3.2.1~5; 3.3.2~4 참조.
4. *지침서 제2권*, 4.4.

## 폭발한 내 복숭아

**나**는 내가 완벽한 엄마인 줄 알았다. ... 아이를 키워 보기 전까지는 말이다.

나에게 부모가 된다는 것은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았다. 내 약점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을 못 잤거나 걱정하거나 화가 났을 때 표출되는 것 같다. 물론, 부모가 되는 축복이 그러한 순간들을 보상해 주기는 했지만, 한편으로 나는 내가 쉽게 화를 내는 성미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인정하기 창피한 일이지만, 아이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소리지르거나 물건을 던지곤 했었다.

다시는 화를 내지 않겠다고 결심도 했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전히 화를 참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돕기 위해 어떤 극적인 상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다.

온종일 복숭아 통조림을 만들었던 어느 날 저녁에 나는 마지막 솥을 불에 올린 후 잠시 눈을 붙이기로 했다. 찜통에서 병들을 꺼낼 때쯤에는 확실히 일어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오산이었다.

남편과 나는 병이 폭발하는 소리에 놀라 일어났다. 부엌으로 뛰어가 보니, 산산조각 난 유리 파편과 끈적한 복숭아가 구석구석에 다 튀어 있었다. 찜통 물이 증발해 버리면서 열과 압력이 가해져서 찜통 뚜껑이 날아가고 7개 중 6개의 복숭아 병이 폭발한 듯 했다.

나는 “내일 아침에 치워야겠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다.

아침에 보니, 뜨거웠던 복숭아

건더기는 유리까지 박힌 채 딱딱하게 굳은 복숭아 덩어리가 되어 부엌과 식당 전체 곳곳에 붙어 있었다. 복숭아와 유리가 뒤섞인 덩어리들이 부엌 조리대 위의 가전 제품 뒤편 아니라 냉장고 뒤편 포함해서 가능한 모든 곳에 튀어 있었다.

치우는 데 몇 시간이 걸렸는지 모른다. 유리가 박힌 덩어리들을 젖은 종이 타월로 적신 다음, 손을 베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닦아 내야만 했다.

**부**엌으로 뛰어가 보니, 산산조각 난 유리 파편과 끈적한 복숭아가 구석구석에 다 튀어 있었다.

그렇게 청소를 하는데, 친근한 음성이 나에게 속삭였다. “매리, 이 병들이 그렇듯 네 화가 폭발하면 쉽게 치울 수가 없다. 네가 화를 낼 때, 네 아이들과 다른 사람들이 어디서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너는 볼 수가 없다. 이 오물처럼 그 상처는 쉽게 굳어지고 고통스럽단다.”

갑자기, 이 청소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청소는 아주 강한 교훈을 담고 있었다. 내 화가 그렇듯, 치우는 일은







## 우린 옳은 일을 한 걸까?

금세 끝나지 않았다. 몇 주가 지난 후에도 나는 유리가 박힌 채 굳어 있는 작은 복숭아 덩어리들을 계속 발견했다.

나는 내가 나의 약점을 극복하여 참을성이 나의 강점이 되기를 기도한다. 한편, 내가 화를 좀 더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주님의 속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 드린다. 더는 나의 분노 폭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망치지 않을 수 있도록 말이다. ■

매리 비싱거, 미국 유타

나는 페루 리마에 있는 몇몇 좋은 잡지와 신문에 기고한 바 있는 유명 기자였지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나의 생활 방식 때문에 날이 갈수록 더 큰 괴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 때문에 나는 집에서 먼 고장인 벤타닐라 구에 있는 잡지사의 교정사 채용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는 당시에 어울리던 친구들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다. 벤타닐라에 가면 내 삶이 바뀔 수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이따금씩 여자 친구인 마리아 크리스티나와 함께 교회에 참석했는데, 두 명의 훌륭하고 끈기 있는 선교사들은 나에게 교회가 참된지를 하나님 아버지께 여쭙어 보라고 설득했다. 결국, 나는 그렇게 했고, 그 결과로 믿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한 번도 느껴 보지 못한 강한 영을 느낀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리아와 나는 결혼도 하고 침례도 받았다. 그리고 벤타닐라에 살기 불편하고 비좁은 방을 하나 얻었다. 열심히 일한 덕분에, 나는 교정사에서 그 회사의 잡지 및 신문 편집인으로 승진했다. 편집인 직책을 맡은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꽤 만족스러웠다. 그렇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료들을 출판하면서 우리 출판물의 표준이 낮아지기 시작했을 때,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이사들의 지시에 따른 이러한 변화는 교회의 원리와 가치관에 위배되었다.

편집인 직책은 늘 원했던 자리였지만, 이런 상황 때문에 나는 마음이 불편했다. 감독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리는 일을 한다면 축복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아내와 함께 이 문제를 심사숙고하고 기도한 후,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며칠 후, 나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고 내가 옳은 일을 한 건지 의문이 들었다. 사직한 후에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보냈지만 어디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아내는 다시 기도를 해 보자고 제안했고, 우리는 그렇게 했다. 우리는 모든 일이 잘 되도록, 그리고 고지서가 쌓여 가더라도 신앙을 잃지 않도록 도움을 간구했다.

몇 시간 후, 아내가 한 회사에 전화를 해 보라고 권했다. 나는 반신반의하며 전화를 걸었다. 그곳의 직원이 나에게 막 전화를 하려던 참이었다고 말했을 때,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는 바로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왔다.

우리는 기쁨에 소리 내어 울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신 것이다.

새로운 직장 때문에 우리는 우리 와드와 훌륭한 많은 친구들을 떠나야 했지만, 더 큰 간증을 갖고 떠났다. 이제 나에게는 훌륭한 일자리와 좋은 급여, 살기 좋은 집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일을 하면 축복이 온다는 확신을 축복받았다. ■

카를로스 하비에르 리온 우가르테, 페루 리마



#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선** 교부 지역 대회가 끝날 때쯤, 나는 밖을 서성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 낮은 나라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게 기대되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을까?’

이탈리아 시칠리아에 온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나는 이미 좌절감에 빠져 있었다. 선교사 훈련원에서 보낸 시간은 멋진 꿈 같았는데, 지금은 내 부족함 때문에 악몽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기도를 드렸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는 훌륭한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보니, 여기서 제가 해야 할 일을 해낼 재능도, 수완도, 지식도 제겐 없다는 게 분명해

보여요. 언어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다들 너무 빠르게 말하고, 말을 하려고 하면 혀가 꼬여 버리는 것 같아요. 제 동반자도 저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선교부 회장님은 영어를 거의 할 줄 몰라요.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다시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나는 길거리에서 몇 분을 더 서성였다. 그때, 세 차례에 걸쳐 내 외투를 잡아당기는 누군가의 손길이 느껴졌다. 돌아보니 예쁜 여자아이였다. 나는 자갈길 위에 서 있는 그 아이 옆에 천천히 무릎을 구부려 앉았다. 아이는 내 목을 끌어안으며 귀에 속삭였다. “Ti voglio bene.(티 볼리오 베니)”

“뭐라고 한 거니?” 나는 아이가 알아 듣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영어로 말했다.

아이는 내 이름표를 바라보며 “Sorella Domenici.(‘도미니치 자매님’이라는 뜻-옴긴이)”라고 읽고는 “ti voglio bene.”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의 뜻을 알고 있었다. 선교사가 되어 처음 배운 말 중 하나였다. 내 영혼에 직접 들려주는 듯한 말이었다. 그 말의 뜻은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이다.

그건 그 순간 내게 꼭 필요한 말이었다. 내게 그 말을 전하도록 구주께서 특별한 전령을 보내신 것이었다. 나는 소녀를 데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이 아이는 분명 회원의 자녀겠지.’라고 생각했다. 아이 엄마가 우리를 발견하기를 바라면서 선교사들 사이로 들어갔다.

동반자를 찾았을 때, 나는 “혹시 이 아이를 본 적이 있나요?” 하고 물었다.

“아이라뇨?” 동반자는 어리둥절해했다.

내 옆을 내려다보았지만 소녀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열린 문 옆에 서서 텅 빈 거리를 이리저리 두리번거렸다. 생각에 잠겨 있는데, 속삭임이 들릴 뿐만 아니라 느낄 수 있었고 내 영혼에 울려 퍼졌다. “Sorella Domenici, ti voglio bene.”

나는 그 소녀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알게 되었다. ■

나탈리 티 프리스트립, 미국 유타

**도** 아보니 예쁜 여자아이였다. 나는 자갈길 위에 서 있는 그 아이 옆에 천천히 무릎을 구부려 앉았다.





**이**튠날 오후,  
나는 저녁에  
먹으려고 준비하던  
음식을 결혼기념일을  
맞은 모건 자매님  
내외에게 갖다  
주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 너무 평범한 음식이지 않나?

**지**난 수년 간 나는 이웃이자 친구인 모건 자매님을 방문했다. 모건 자매님은 나보다 몇 십 살이 더 많으셨고, 그래서 방문 교육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히려 자매님에게 삶의 지혜를 많이 배웠다.

내가 방문 교사였던 시기에 모건 자매님은 암 진단을 받으셨다. 나는 용감하게 치료 과정을 견디고 거의 항상 웃으시며 생활하시는 자매님이 참 놀라웠다.

하루는 방문을 했는데, 다음 날이 결혼기념일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하지만 우리의 대화는 곧 다른 주제로 이어졌고, 그렇게 방문은 끝이 났다.

이튠날 오후, 나는 저녁에 먹으려고 준비하던 음식을 결혼기념일을 맞은 모건 자매님 내외에게 갖다 주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그저 평소에 먹는 평범한 음식을 준비하던 중이어서 처음에는 그 느낌을 무시했다. 그런 흔한 음식은 그런 특별한 날에 걸맞지 않은 것 같았다.

그런데 그 느낌이 떠나질 않는 것이었다. 나는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동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직장에서 일하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모건 자매님에게 전화를 걸어 음식을 갖다 드리겠다고 말하면 좋겠다고 했다.

음식이 조출한데다가 너무 나서는 것 같아 전화를 못하고 주저하는데, 여전히 음식을 갖다 드려야 한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음식을 접시에 담아 걱정을 하며 길을 나섰다.

자매님의 집 마당에 들어섰을 때, 차에 타는 자매님 내외가 보였다. 나는 결혼기념일을 위해 음식을 좀 가져왔는데 드셔 보시겠냐며 말을 건넸다.

자매님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자매님은 암 치료로 너무 고단해서, 음식을 하거나 어디로 갈 수도 없으니 그냥 동네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간단하게 결혼기념일을 축하할 생각이었다고 설명하셨다. 자매님은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어 안도하는 것

같았다.

자매님 부부가 내가 준비한 조출한 음식을 반기시는 것을 보면서 행복과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로부터 두 달도 안 되어서 모건 자매님이 암 치료를 마칠 무렵에 자매님의 소중한 남편 분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몇 주 전의 결혼기념일이 두 분에게는 마지막 기념일이었던 것이다.

그 해 여름,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서 영의 고요하고 작은 음성을 따르는 것에 관하여 많은 것을 배웠다. 봉사하도록 부탁 받거나 어떤 느낌을 받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거북하거나 불편하거나 단순히 보일 수도 있지만, 어찌면 그게 바로 꼭 필요한 일일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주님께서 어떤 일로 나를 필요로 하시든 봉사할 용기를 얻게 되었으며, “천사들의 심부름”(오 시온의 자매여, 찬송가, 198장)을 할 신앙을 갖게 되었다. ■  
제니퍼 클링건스미스, 미국, 유타



# 주님에게서 오는 확신을 신뢰하며

**우리는 시련에서 구조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에게서 오는 확신을 구한다면, 어려운 시기에도 모든 일이 잘 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민디 앤 레빗  
교회 잡지

**성**전에서 나는 해의 왕국실에 앉아 내 인생이 나아갈 방향을 생각하고 있었다. 내 삶은 명백히 계획했던 길에서 벗어나 있었다. 많은 청년 성인들이 그렇듯 내 마음은 번뇌로 휩싸였다. 어떻게 하면 좋은 점수와 사회 생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하나? 일자리를 하나 더 구해야 할까?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저축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왜 아직까지 결혼하지 못했는가? 그러한 질문이 아프게 이어졌다. 나는 위로를 구하기 위해 성전에 간 것이었다. 그곳에서 내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확신을 달라고 기도했다. “제 인생의 모든 일이 제대로 풀릴 수 있을까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여쭙었다. 응답은 뚜렷하고 신속하게 내 마음에 찾아왔다. “모든 것 잘되리.”

순간, 나는 삶이 계획대로 돌아가지는 않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나아가고 있으며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비록 내 시련을 늘 거두어 주시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알고 보살피신다는 그 감미로운 확신으로 나는 많은 난관을 헤쳐 올 수 있었다. 이런 확신을 이해하고, 구하며, 기다린다면, 우리는 자기 위에 놓인 짐을 통해 주님에게서 주시는 도움을 인식할 수 있다.

## 구함을 받으리라는 확신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청에 대해 응답하여 언제나 즉시 우리를 구해 주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개인적인 계시를 통해 값진 확신의 순간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즉 그분이 우리 생을 인도하고 계시며 곤경에서 구해 주시리라는 확신을 느끼게 해주심으로써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더라도 시련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주님의 구해주심이 그저 성신의 위로에 불과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나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전에 어떻게 그런 확신을 주시는 지에 대한 많은 예를 경전에서 목격했다.

힐라맨이 2,060명의 청년 병사와 다른 니파이인 병사들을 이끌 때, 그들은 주님에게서 오는 확신을 경험했다. 여러 달 동안 증원군과 물자를 기다리다 약간의 병사와 함께 식량이 도착했지만, 그들은 몹시 굶주려 있었다. 이와 같은 소규모 지원으로는 수습이 어려울 것임을

우려한 그들은 마침내 주님께 돌이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내어,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을] ... 건져 내 ... 주시기를 기도하였[다].” 기도를 마친 후 힐라맨은 이렇게 말했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그가 우리를 구하시리라는 확신을 주셨나니, 참으로 그는 우리의 영혼에 평강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큰 신앙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바라게 하셨느니라.”(엘마서 58:10~11) 이와 같은 확신으로 힐라맨과 그의 병사들은 버틸 힘을 얻고 적을 물리칠 수 있었다.

조셉 스미스 또한 리버티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주님께서서 확신을 받았다. 조셉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아들이, 네 영혼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역경과 네 고난은 잠시 뿐이리니, 그리고 나서 만일 내가 이를 잘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 들으실 것이요, 너는 너의 모든 원수를 이기리라.”(교리와 성약 121:7~8)

이 확신으로 조셉은 사면초가와 같은 곤경을 헤쳐 나갈 용기와 힘을 얻었다.

이런 예와 기타 여러 사례(예를 들어, 모사이야서 24:8~16 참조)에서 보듯이 주님은 충실한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즉시 구해 주지는 않으신다. 그보다는 주님께서 정하신 시기에 구해 주시리라는 확신을 심어 주시므로써 그들을 돌보셨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의 말씀을 빌리면, 이런 확신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여정을 밝혀” 주시고자 우리 길 위에



## 그분의 능력에 대한 확신

“우리 모두는 역경에 대처해야 합니다. ... 역경 중에 구주께서 약속하신 위안을

기다려야 할 때,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고 도와야 하는지를 경험을 통해 알고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위안이 될 것입니다. 물론 경험은 그분의 위안의 권능에 대해 확신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권능에 대한 신앙은 우리가 기도하고, 일하고, 도움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에게 인내심을 줄 것입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역경”,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24쪽.

비추는 “영적인 빛”과 같다. 마침내는 구조되리라는 것을 알 때, 종종 이러한 확신 자체가 갖가지 난관을 헤쳐 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될 때가 있다.

## 확신을 구함

인생은 고달프다. 우리는 의문을 가질 때도 있고, 역경을 헤쳐 나갈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해, 희망을 잃어버릴 때도 있다. 시련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 어떤 확신은 우리 쪽의 노력이 없는데도 찾아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고난에서

벗어나리라는 확신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

주님의 확신이 현지 지도자나 종교 교육원 및 주일학교 교사, 특히 주님의 선지자 및 사도와 같은 주님의 종의 음성을 통해 올 때도 있다. 본부 청년 회장단 제1보좌인 캐럴 에프 맥콩키 자매는 “그들의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구주의 사랑을 느낀다.”<sup>2</sup>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이런 확신은 또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는 동안이나 경전을 읽고 곰곰이 생각할 때, 또는 교회 모임과 성전에 참석하거나 이웃을 섬기며 옹운 일을 하고자 할 때 영의 속삭임을 통해서 온다. 요약하면, 주님께서서 오는 확신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며]”(신명기 4:29) 계명을 지킬 때 온다.

힐라맨과 그의 용사들은 신실한 기도를 여러 번 드린 후에, 그리고 조셉 스미스는 기도와 묵상 끝에 확신을 얻었다. 이 두 사례에서 주님께서서 확신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들의 신앙과 인내를 시험하셨다. 이는 우리가 시련 가운데서도 신앙을 잃지 말고 인내해야 함을 명쾌하게 말해 준다.

## 확신을 기다리며

인내에 대한 시험들이 그렇듯이, 주님의 확신은 우리가 기대하는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는 삶에서 주님의 손과 그분의 확신을 “볼 눈”(에스겔

12:2)을 얻기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주님의 친절한 자비에 어떻게 이런 확신이 포함될 수 있는지를 말씀하며 이렇게 설명했다. “주님의 자비는 무작위로 혹은 단순하게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충실과 순종만이 우리가 이 중요한 은사를 받을 수 있게 해 주며, 종종 주님의 타이밍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도와줍니다.”<sup>3</sup>

구함을, 또는 구함을 받으리라는 확신을 기다리는 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인내가 요구될 때가 있다. 어떠한 확신을 얻기에 앞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야 할 수도 있다. 스코트 장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주님께서 비추시는 “영적인 빛은 종종 시련이 가장 컸을 때,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의 동정심과 사랑의 증거로 옵니다. 그것은 더 큰 행복과 이해력으로 향하는 길을 알려 주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는 결의를 다져 줍니다.”<sup>4</sup> 시련 속에서도 충실하고 순종한다면, 계속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것이다.

### 우리의 가장 큰 확신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처한 상황을 잘 아신다는 확신을 얼마나 많이 얻었던 간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소망이 없다면 끝까지 견디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분의 속죄를 통해, 우리는 언젠가 모든 시련에서 구조될 것이라는 완전한 희망을 품을 수 있다. 또한 우리는 “만물 아래로도 내[려가] … 그리하여 그는 만물을 이해하[셨기에]”(교리와 성약 88:6) 구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벽하게 공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분은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시[고] …… 자기 백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좇아 어떻게 도울지 아시고자 하[셨기에]”(앨마서 7:11~12) 우리의 시련과 슬픔을 이해하신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중대한 확약이 들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약속된 구주, 구속주가 계시어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신앙을 통해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도록 그분이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 그 거룩한 사랑에 대해 감사할 때, 우리는 그분이 겪은 고통에 비해 작은 우리의 고통을 견디고, 이해하며, 결국에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sup>5</sup> 그분에 대해, 또 그분의 속죄에 대해 배우는 것 그 자체가 하나의 확신이다.

### 모든 것 잘 되리

주님에게서 오는 확신을 이해하고, 이를 구하고, 기다린다면, 필경 그 확신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런 값진 순간들을 기억하고, 기록하며, 틈틈이 생각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신뢰해야 한다. 아울러 힐라맨과 그의 용사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믿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리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주님은 확신을 주심으로써 그러한 약속을 일깨워 주신다. 그런 확신이 있더라도 우리의 고난은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것을 통해서든 우리를 돕고 지지해 주시고자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날 성전에서 그와 같은 경험을 한 후에도 내 시련은 줄어들지 않았다. 별안간 완벽한 점수를 얻거나 돈을 더 벌게 되지도 않았고 데이트를 많이 하게 되지도 않았다. 하지만 나는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구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려 하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시련 속에 있더라도 괜찮아지리라는 평온한 확신을 얻게 되었다. 그러한 확신과 더불어, 나는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것을 안다. ■

### 주

1. 리차드 지 스코트, “주님을 신뢰함”,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17쪽.
2. 캐럴 에프 맥쿱키, “선지자들의 말씀에 따라 사십시오”, 리야호나, 2014년 11월호, 77쪽.
3.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사”, 리야호나, 2005년 5월호, 100쪽.
4. 리차드 지 스코트, “주님을 신뢰함”, 17쪽.
5. 제프리 알 홀런드, “깨진 그릇과 같으니”, 리야호나, 2013년 11월호, 40쪽.

**주님께서 비추시는 “영적인 빛은 종종 시련이 가장 컸을 때,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의 동정심과 사랑의 증거로 옵니다. 그것은 더 큰 행복[으로] … 향하는 길을 알려 줍니다.”**



신야오 초

**20** 05년, 나는 대만 난치의 집을 떠나 전임 선교사로서 북 캘리포니아에서 봉사하게 되었다. 내가 동반자와 함께 배치된 지역은 상당히 작은 편이어서, 4개월 보름 만에 우리는 중심지의 모든 거리에 있는 문을 다 두드릴 수 있었다. 선교 사업은 어려웠고, 사람들은 자주 우리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구도자도 거의 없었다. 일이 잘 될 것 같은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녀 달쯤 거기서 봉사했던 나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내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 갈 것으로 확신했다.

일요일 밤, 전화를 기다리던 끝에 마침내 지역 지도자의 전화를 받게 되었다. 그는 내가 같은 지역에 6주 동안 더 머물게 되었다고 했다.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

다음 한 주 동안 나는 완전히 재앙 같은 일주일들을 보냈다. 어쩌면 내 동반자와 우리가 돌보는 사람들에게도 그랬을지 모른다. 나는 이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믿으려 하지 않았다.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마주칠 때마다 여전히 함박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불행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교만한 마음으로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못 된다고 계속 나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여전히 선교부 회장님이 전화를 걸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었다.

# 이동은 어색스럽다



**선교부 회장님이 실수를 하신 것이 분명했다. 내가 이 지역에 머문들 무엇을 더 배울 수 있던 말인가?**

**나를 안심시켜 준 것**

다음 일요일 아침, 마지못해 교회에 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선교부 회장님이었다. 그분은 평소처럼 친절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인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했다. “초 자매님, 어제 점심 때 자매님에 대해 생각하다가 자매님이 지금 올바른 곳에 있다는 것을 전화로 알려 드려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시다. 자매님은 지금 자매님이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다.” 회장님의 말씀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는 감사하다고 말씀 드리고서 전화를 끊었다. 울음이 터져 나오는데, 우리 지역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임무가 있으며 그 일이 내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느낌이 강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생각과 마음의 불편함을 아신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그분은 내 연약함을 이해하셨고 나를 안심시키기 위해 그분의 종을 보내셨다.

전화를 받은 후 나는 다시 나 자신을 가다듬었다. 나는 날마다 기도로 힘을 구했다.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이룰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달라고 간구했다. 그리고 이어진 5주 동안 나는 동반자와 함께 더 충실한 신앙을 발휘하여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많은 기적을 목격하게 되었다. 잘 준비된 한 구도자가 우리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그 이동

기간 내에 침례를 받았다.

또, 우리는 전에 우리를 반기지 않았던 사람들의 집에도 초대되었다.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위로가 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축복을 받았다. 비록 몇 사람은 그 당시에 침례를 받지 않았지만, 그들의 빛나는 얼굴을, 또 영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들과 내 마음을 감동시켰는지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깨우친 것**

나는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배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선교사들을 이유 없이 어느 지역에 보내지는 않으신다. 또 우리가 어떤 지역에 배치되면 주님께서는 거기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그분의 일을 성취하려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자신을 그분의 손에 맡기면, 기적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할 때에도 말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선교부 회장님이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처럼 진정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종임을 배웠다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 지도자들에게 우리 영혼의 복리에 필요한 계시와 영감을 받을 권리를 주신다.

나는 이동을 가지 않음으로써 얻은 경험을 영원토록 감사히 여길 것이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무 이미지: GRACETHANG/STOCK/THINKSTOCK; 여행 가방 이미지: MONICELLO/STOCK/THINKSTOCK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 급변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인생과 바쁜 일정과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에 다시 초점을 맞추는 좋은 때인지도 모릅니다.

**비**행기 안에서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는 일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갑작스런 기류 변화로 항공기가 앞뒤로, 그리고 좌우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는 여러분이 보통 비행 중에 겪는 흔들림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흔들림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만, 보통 강도로 흔들리더라도 승객 입장에서는 아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조종사들이 난기류를 만나면 무엇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종사가 되려고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면 속도를 높이면 난기류를 빨리 통과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전문 조종사들은 난기류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키면서 난기류를 관통하는 최적 속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것은 속도를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동일한 원리가 도로에 있는 과속 방지턱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역경에 처할 때는 조금 천천히, 그러면서도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고 본질적인 것들에 초점을 맞추려는 것이 훌륭한 조언이 되겠습니다.

### 현대 생활의 속도

현대 생활의 특징 중 하나는 난기류나 장애물을 개의치 않고 늘 속도를 높이면서 나아간다는 점입니다.



### 하나님과의 관계

솔직히 말해서 바쁘게 사는 것이 더 쉽습니다. 우리 모두는 일정을 압도할 만큼 해야 할 일을 많이 생각해 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자부심이 해야 할

일의 목록 길이에 달렸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매일 미친 듯이 인생을 질주하고 싶은 유혹에 저항합니다. 그들은 “인생에는 속도를 높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라는 조언을 따릅니다. 간단히 말해,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은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 내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 몇 가지 좋은 것들을 먼저 해야 하는데, 이는 그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발전시키고 우리 가족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sup>2</sup>

가장 좋은 것을 찾다 보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기본 원리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늘 보살피시고, 영원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밝혀주신 단순하고 아름다운 진리입니다.

###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저는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대부분이 직관적으로 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저 더 매혹적으로 보이는 아주 많은 것에 때때로 마음을 뺏기는 것입니다.

인쇄물, 다양한 매체 자료, 전자 기기와 장치, 이 모든 것은 적절하게 사용하면 유용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해로운 것으로 바뀌거나 인간을 고립시키는 비정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목소리와 선택 가운데서도 겸손하신 갈릴리의 그분께서는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서 계십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누가복음 18:22). 그분은 성능이 좋은 확성기에 대고 말씀하시지 않고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열왕기상 19:12 참조) 사망에서 쏠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기본적인 복음 메시지는 쉽게 그

자리를 잃게 됩니다.

거룩한 경전과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말씀은 복음 원리와 교리에서 기본이 되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 기본 원리로, 순수한 교리로 돌아가는 이유는 그것이 심오한 의미를 지닌 진리로 들어서는 출입구이기 때문입니다.

### 기본: 네 가지 주요 관계

하나님 아버지께 향하고, 가장 중요한 것에 관해 그분의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네 가지 주요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거듭 배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가족과, 이웃과, 우리 자신과 우리가 맺는 관계입니다. 기꺼이 행하려는 마음으로 삶을 평가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장 좋은 길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이해하는 눈을 뜨기 위해,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 삶의 초점을 다시 맞추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와 하나님이 맺는 관계는 가장 성스럽고 지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의 자녀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울 때, 성령의 영향력에 우리 마음을 열 때 삶은 더욱 안정되고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생활하고 그분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더 큰 평안과 기쁨과 성취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관해 배우고, 그분과 교감하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 가족과의 관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므로]"(요한복음 14:6)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따를 때, 우리와 그분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면 그분과 단 둘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매일 조용히 개인 기도와 경전 연구에 집중하고 늘 유효한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기에 합당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매우 현명하게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다음 권유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시편 46:10).



이웃과의 관계

두 번째로 중요한 관계는 가족과 맺는 관계입니다. "어떠한 성공도 가정에서의 실패를 보상할 수 없[기]"<sup>3</sup> 때문에 우리는 가족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거나 가정의 밤을 하거나 그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등 단순한 일들을 함께 하면서 강하고 애정 깊은 가족 관계를 형성합니다. 가족 관계에서 사랑은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표현됩니다. 서로를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이 가정에서 조화를 이루는 비결입니다. 서로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로에게서 배우고 공통점과 더불어 차이점에 대해서도 감사해합니다. 가족 기도, 복음 공부, 일요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함께 다가갈 때 신성한 유대를 확립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관계는 이웃과 맺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한번에 한 사람과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 사항에 민감하고, 그들에게 봉사하고,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나눌 때 그런 관계를 쌓을 수 있습니다. 고령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일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려고 결심하신 어느 자매님께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매주 그 자매님은 근심에 잠기거나 낙담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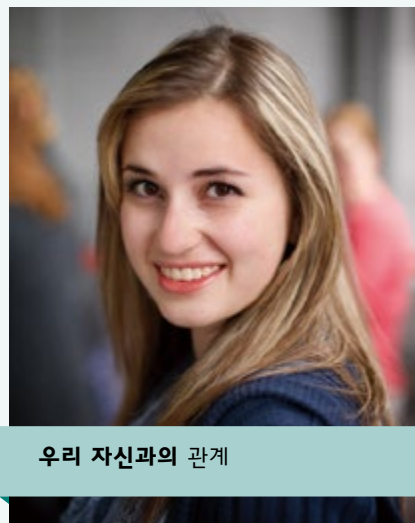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찾아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자매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참으로 큰 축복이 되셨습니다.

네 번째 중요한 관계는 우리 자신과 맺는 관계입니다. 자신과 관계를 맺는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하루 종일 자신을 비난하고 비하하다가 급기야는 자신을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바쁜 일정을 줄이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시간을 조금 내시도록 제안합니다. 자연 속을 걷고, 해돋이를 보고, 하나님의 창조물을 감상하고, 회복된 복음 진리를 깊이 생각하고, 그것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보시듯이 자신을 보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신성한 잠재력이 있는 소중한 딸과 아들로 보십니다.

**단순함에 깃드는 힘**

힘은 종종무진하는 활동이 아니라 진리와 빛이라는 굳건한 기초 위에 자리잡을 때 옵니다. 힘은 우리의 주의와 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이라는 기초에 둘 때 옵니다. 힘은 신성하고 가장 중요한 것에 주의를 기울일 때 옵니다.

삶을 조금 단순화하십시오. 삶의 초점을 단순하고 겸허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숭고한 아름다움에 다시 맞추기 위해 필요한 변화를 일으킵시다. 그 길은 늘 의미와 기쁨과 평안이 있는 인생으로 이어집니다. ■



우리 자신과의 관계

2010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발췌함.

주  
 1. Mahatma Gandhi, *Larry Chang, Wisdom for the Soul* (2006), 356.  
 2. 멜린 에이치 옥스, "좋은 것,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리야호나*, 2007년 11월호, 107쪽.  
 3. J. E. McCulloch, *Home: The Savior of Civilization* (1924), 42; 또한 Conference Report, Apr. 1935, 116 참조.

# 우리들 공간

## 예상 밖의 면접 질문

**선** 교 사업을 마친 후에 나는 일자리를 찾으려고 동분서주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면접을 보게 되었다. 그 자리는 좋은 기회였지만, 나는 내 실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했다. 내 면접 차례가 되자 나는 잔뜩 긴장한 채로 면접관 앞에 앉았다. 힐끗 책상을 보니 지원자에게 묻는 면접 질문지가 놓여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까다로운 용어가 나오는 질문들이었다.

면접관은 내 이력서를 보더니 경력에 관해 묻기 시작했다. “전임 선교사” 부분에 이르자, 면접관은 선교 사업하며 가르쳤던 것을 말해 달라고 했다.

나는 선지자, 구원의 계획, 영원한 가족 등에 관해 이야기했다. 면접관은 빙그레 웃더니 “와서 우리 가족을 만나 보면 좋겠군요.”라고 말했다.

면접관은 다시금 면접 설문지를 집어 들었다. 긴장감이 다시 돌아왔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묻는 것이었다. “마닐라에 거주할 곳이 있습니까?” 그러고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이렇게 말했다. “자, 이제 적당한 곳을 찾아야겠군요. 내일부터 일을 시작해야 하니 말이요.”

정말 기적이었다. 나는 선교사로 봉사한 일이 구직 면접에 도움이 된 이 일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

앨빈 에이, 필리핀

## 핍박 속의 평화

**다** 음 발표자의 발표 주제를 듣고서 나는 허리를 세워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 주제란 바로 몰몬 교회가 왜 그리고 몰몬들이 왜 위선적이며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자들인가였다. 그 발표를 듣는데, 뺨이 달아올랐다. 충격과 배신감에 가슴이 쓰라렸다. 내가 후기 성도라는 걸 알면서, 내 친구이면서, 어떻게 영어 수업을 듣는 이 모든 학생들 앞에서 저런 중상모략을 할 수 있는 거지?

종이 울리자 발표자와 몇몇 친구가 내게 다가왔다. 나는 내 안에 타오르는 영을 느끼며, 말한 내용이 잘못되었을 뿐더러 우리 교회는 우리 믿음대로 생활하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아이들은 다시 나를 반박하며

그릇되고 비난하는 말을 쏟아냈다. 외톨이가 된 느낌이었다. 그때, ‘내가 옳다고 아는 바 대로 생활하는데 그걸로 핍박을 받아야 한다면 그게 공평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학교에서 돌아온 뒤에 나는 할머니가 보내주신 이메일을 보았다. 할머니는 이메일에서 마태복음 5장 11~14절을 찾아보라고 하셨다. 나는 눈물을 머금은 채 그 성구를 읽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을 읽자 내 마음속은 성신으로 가득 찼다. 나는 핍박이 우리의 간증을 강화하며, 하늘의 축복이 우리가 이곳 지상에서 겪는 고통을 충분히 가치 있게 해 줄 것임을 안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복음대로 생활한다는 이유로 핍박 받을 때에도 평화를 찾을 수 있게 해주셨다. 그것이 정말 감사하다. ■

베카 에프, 미국 몬테나





## 나의 음악 탈출 계획

**음악** 교 현장 학습을 가기 위해 버스에 탔을 때 한 여자 아이 앞에 앉았는데, 그 친구가 계속 저속한 말과 농담을 하는 바람에 나는 마음이 불편했다. 선생님들과 다른 학생들이 그만하라고도 했지만, 그 아이는 멈추질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던 나는 MP3 플레이어를 꺼내 좋아하는 음악을 듣기로 했다.

무작위로 음악을 틀었는데 처음으로 나온 노래가 [youth.lds.org/music](http://youth.lds.org/music)에 있는 노래였다. 그 노래를 건너뛰려고 했을 때,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그 음악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20분간

계속해서 영감을 주는 음악들을 들었다. 노래 가사들을 통해 나는 인내하도록 독려되었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딸임을 기억할 수 있었다.

며칠 후에 학교에서 무도회가 열렸다. 유행하는 댄스 음악의 정화된 버전을 틀긴 했지만, 한 노래에서는 많은 학생이 욕설로 된 가사를 소리쳐 부르기 시작했다.

다시 한 번 마음이 불편해졌다. 선생님들이 근처에 앉아 있었지만, 다들 인식하지 못하신 것 같았다. 나는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청소년 대회에서 받은 그 팔찌에는 “너희는 거룩한 곳에 서서

움직이지 말라”(교리와 성약 87:8)고 적혀 있었다.

나는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 아니었음을 알았기에 새로운 노래가 나올 때까지 그곳을 떠나 있었다.

나는 음악이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또, 며칠 전에 MP3 플레이어에 있는 영감 어린 음악을 들었던 경험 덕분에 무도회장을 떠날 용기를 낼 수 있었다는 것도 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갈 힘을 얻게 되었다. ■

앨릭사 비, 네덜란드

# 침례 요한처럼

## 복음을

# 나누라

구주께서 처음 오셨을 때 침례 요한이 그랬듯이, 우리도 사람들이 구주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도울 수 있다.



라이언 카  
교회 잡지

**우**리는 침례 요한과는 달리 “유대 광야”(마태복음 3:1)에서 선교 사업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낙타털”(마태복음 3:4)로 짠 옷을 입지도 않을 것이다. 또 “메뚜기와 석청”(마태복음 3:4)을 먹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목적은 침례 요한과 같다.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태복음 3:2)라고 외침으로써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돕는다.

침례 요한의 사명은 분명했다. “메시아에 앞서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니파이전서 10:7)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그의 선교 사업은 쉽지 않았다. 요한 전에 있었던 마지막 선지자는 400여 년 전의 말라기였다. “선지자가 없었던 터라 그 땅의 백성들은 여러 도당과 무리로 나뉘었고 각자가 경전을 해석하고 사람들을 이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집단들 사이에서 여호와에 대한 참된 이해는 점점 희석되었다.”<sup>1</sup>

침례 요한의 시대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많은 사람이 광야로 나와 그가 전파하는 말을 듣고 그에게 침례를 받았다. 후에 사도가 된 두 사람, 즉 요한과 안드레는 침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요한복음 1:40 참조)

오늘날 복음을 나누는 일도 그에 못지 않게 어렵다. 현대의 생활은 사람들의 마음을 흐트러트린다. 갖가지 세속적인 철학으로 사람들은 길을 잃는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높은 도덕적 표준에 못 미치는 생활을 하고 있다. 종교가 왜 필요한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침례 요한처럼 복음을 성공적으로 나눌 수 있을까? 요한의 생애에서 배울 수 있는 다음 몇 가지 교훈이 도움이 될 것이다.

침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도록 돕기 위해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았다.(누가복음 1:16 참조) 구주를 뵈게 된 침례 요한은 이렇게 간증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한복음 1:29) 침례 요한은 자기를 따르라고 하지 않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도왔다. 침례 요한은 구주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요한복음 3:30).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기본 원리를 가르쳤다. 그는 사람들에게 공의, 자비, 정직, 도덕, 금식, 기도,



회개, 죄의 고백, 침수로써의 침례, 부활 그리고 심판을 가르쳤다.(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참조) 그의 가르침은 구주의 가르침에 비견할 만했다. “못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마가복음 1:22).

침례 요한은 세상과 다르게 살았다. 예수님께서서는 침례 요한을 세속적인 교사들과 대비해 말씀하셨다. 요한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도] ... 화려한 옷을 입고 ... 왕궁에 있는[는]”(누가복음 7:25) 사람도 아니었다.

그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였다.]”(누가복음 1:15) 침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마가복음 1:3)고 외쳤다. 그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을 느끼고 마음을 돌이켰다.

침례 요한은 온 마음을 바쳤다. 한 학자는 요한의 성품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그는 일심전력, 특별한 부름에 대한 헌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완전한 충성, 이런 자질과 함께 거룩한 신권 권세, 담대한 성품 및 개인적인 의로움을

갖추어 경전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sup>2</sup>

침례 요한의 생애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침례를 주는 독특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 외에도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생애와 사명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구주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었다. ■

주

1. 에스 켄트 브라운 및 리처드 나이젤 홀자펠, “잃어버린 500년: 말라기에서 침례 요한까지”, *리아호나*, 2014년 12월호 30쪽.
2. Robert J. Matthews, “John the Baptist: A Burning and a Shining Light,” *Ensign*, Sept. 1972, 79.



### 왜 우리는 이 시대에 지상에 살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구주의 재림을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는 성스러운 의무를 수행하도록 우리를 이 시기에 지상으로 보내 주신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릴 것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희 닐 엘 앤더슨 장로,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십시오”,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52쪽.

# 하지만 만일 ...?

## 선교 사업에 관한 질문

선교 사업을 할 시점이 다가오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될지 모른다.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렇다. 여러분은 할 수 있다! 선교 사업은 쉽지 않겠지만,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선**교 사업을 준비할 엄두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돈, 지식, 수줍은 성격 등 걱정거리가 많지만, 염려되는 바가 무엇이든 여러분은 필요한 용기와 확신을 얻을 수 있다. 여기, 두려움을 이기고 신앙을 발휘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 보편적인 질문과 해답을 소개한다.

### 만일 경전이나 복음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면?

선교 사업 준비에는 확실히 복음 공부도 포함되지만, 떠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알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한 예로,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엘 앤더슨 장로는 청남 시절에 자신이 선교 사업을 나갈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을 걱정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는 것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선교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교회를 믿었지만 저의 영적인 지식은 매우 한정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기도를 하는 동안 이런

느낌이 왔습니다. ‘네가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나 충분히 알고 있느니라!’”<sup>1</sup>

성실히 공부하여 복음 원리를 배우고 경전을 연구하면, 복음 지식이 쌓일 것이고 여러분은 홀로 남겨지지 않을 것이다. 성신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동반자와 선교사 지도자, 선교부 회장이 여러분의 노력을 도와줄 것이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의 다음 가르침을 기억하기 바란다.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큰가, 또는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신앙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해 나타내 보이는 고결하고 성실한 태도입니다.”<sup>2</sup>

### 만일 간증이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간증을 얻는 것은 선교 사업 준비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간증이 약하다고 생각되더라도 간증을 쌓고자 성실하게 노력하면 간증은 성장할 것이다. 다음을 기억한다.

- 조용한 시간을 찾아 공부하고

기도한다. 영의 속삭임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 복음대로 생활한다. 그것이 어떻게 간증을 자라게 하는지 알기 위해 요한복음 7장 17절을 참조한다.
- 한 번에 조금씩 간증을 쌓는다. “[여러분의] 영적인 여정은 일생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 여정의 시작이나 중간에 일어나는 일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개종은 한걸음 한걸음씩 이뤄집니다.”<sup>3</sup>

아울러 여러분의 간증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클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한다. 홀런드 장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최근에 저는 열네 살 소년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홀런드 형제님, 저는 아직 교회가 참됨을 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되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소년을 힘껏 안아 주었습니다. 저는 그 소년에게 믿는다는 것은 소중한 말이고, 심지어 소중한 행위이며, 믿기만 한다고 해서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 말했습니다. 저는 소년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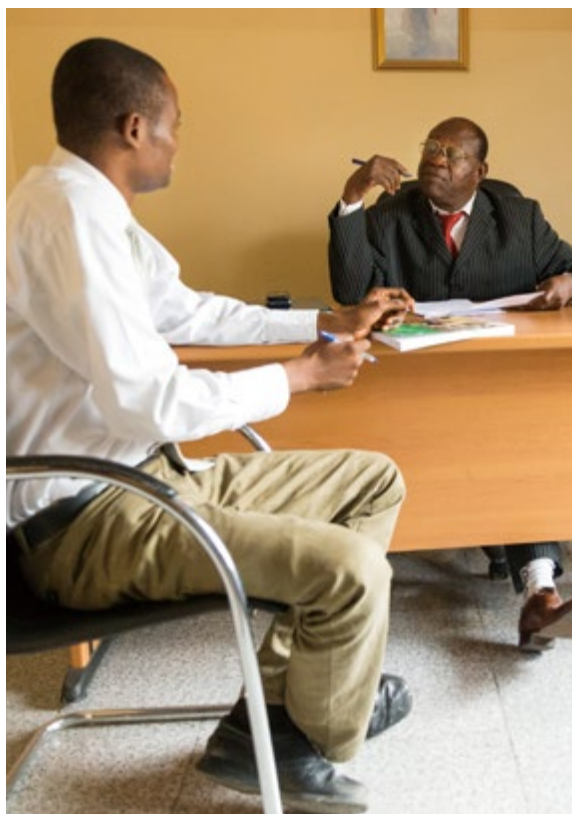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으며 … 믿음은 언제나 확신에 이르기 위한 첫걸음이며, … 그리고 그렇게 정직하게 말해 준 것에 대해 그 소년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지도 알려 주었습니다.”<sup>4</sup>

**만일 자신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삶에 잘못된 무언가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 감독, 또는 지부 회장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깨끗해지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도와줄 수 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여러분이 선교사로 나가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 기도하기보다, 합당하고 권능을 받은 전임 선교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어떠한 절차라도 밟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도록 간구할 것을 촉구드립니다.”<sup>5</sup>

러시아의 레베카 에스는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저는 회개했지만 너무도 나쁜 잘못을 저질렀기





## 청년: 선교 사업 결정

**청**년 여러분은 봉사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기회는 존재합니다. 봉사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 ▶ 선교 사업은 나에게 옳은 길일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 ▶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까?
- ▶ 내가 선교 사업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 나도 좋은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

다음 기사에서 대답과 인도를 찾아보십시오. “청년과 선교 사업 결정”, *리아호나*, 2013년 1월호, 32~35쪽.

때문에 고통과 죄책감을 느껴서 선교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감독님과 스테이크 회장님은 제 삶에서 속죄의 치유 권능을 깨우치도록 도와주셨어요. 저는 회개에 대해 무척 감사하고 있습니다. 합당함은 선교 사업의 모든 것이예요. 합당하지 않으면 영으로 가르칠 수 없죠.(교리와 성약 42:14 참조) 온 마음을 다해 봉사하려면 마음에 평화를 느껴야 하거든요. 합당성은 모든 면에 영향을 끼칩니다.”

### 어떻게 가족 및 친구들과 헤어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은 친구와 가족들, 그리고 특히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다. 귀환할 때 여러 상황이 달라지리라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더 그렇다. 가족들이 나 없이 어떻게 생활을 꾸려 나갈까, 또는 가족들이 선교 사업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의 봉사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교리와 성약 100:1 참조) 그들이 그리겠지만, 주님은 복음이 주는 행복을 찾는 다른 가족들을 도와줄 여러분이 필요하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바라신다는 것을 믿고, 다음 말씀을 기억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해 위대한 것을 마련하신다는 점을 … 신앙으로 믿습니다.”<sup>6</sup> 여러분이 신앙을 발휘하여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신다.

### 만약 선교 사업 비용을 댈 수 없을 것 같다면?

선교 사업 비용은 커다란 희생처럼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신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시키셨는지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선교 사업 비용을 마련할 방법을 알지 못해 고민하는 청남 여러분에게 말씀 드립니다. 저도 그 방법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신앙을 갖고 선교 사업을 나갈 결심을 하면 길이 생길 것임을 저는 압니다.”<sup>7</sup>

영국에 사는 로런 시의 경험을 들어 보자. “선교 사업 서류를 준비할 때 저에게 커다란 신용카드 빛이 있다는 통보를 은행에서 받게 되었어요. 저는 감독님과 함께 제 부채와 선교 사업 비용, 십일조, 그리고 기타 비용 등에

각각 얼마를 지출해야 할지 예산 계획을 세웠습니다. 많은 희생이 필요했기에 목표를 이룰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충실하게 십일조를 바치자, 주님께서 개입해 주셨습니다. 어떤 낯선 분이 주신 돈으로 저는 빚을 갚고 선교 사업을 나가는 데 필요한 비용을 댈 수 있었습니다.”

**만일 사람들과 말하는 걸 어려워한다면?**

날마다 온종일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무거울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샘 엘은 이렇게 회상한다. “제 방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대답하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의 문을 두드려 복음을 전하는 건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스테이크 청소년 대회에서 선교사들과 함께 나가 복음을 전파하는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선교사들과 함께 나간다고? 진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지만, 곧 경전 구절 하나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이사야 41:13) 저는 그런 도움이 저와 함께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어색하긴 했지만, 저는 성신을 통해 힘을 얻었다고 느끼면서 몰몬경 두 권을 나누어 주기까지 했습니다.”

**만일 학업이나 경력에 방해가 된다면?**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준비할 때 이를 미루고 선교 사업에 시간을 바친다면 장래를 망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이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바라시며, 또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다. 주님께 바칠 수 있는 것 중에 선교 사업만큼 값진 것은 없다.

수많은 젊은이가 비슷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호주의 윌리엄 에이치는 나중에 귀환하면 다시 선수로 뛸 기회가 있을지 미래가 불투명했으나 유망한 럭비 선수 생활을 뒤로하고 선교 사업을 떠났다. (“선교 사업을 위한 타임아웃”, *리아호나*, 2012년 6월호, 50~52쪽 참조) 필리핀의 조셉 비는 일생일대의 진학 기회를 포기할 준비를 하고 대학

행정실로 들어섰다. (“번제”, *리아호나*, 2007년 9월호, 40~42쪽 참조) 선교 사업을 마친 후 여러분이 바라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선교사로서 봉사하는 것만큼 여러분에게 값진 기회는 또 없을 것이다.

**후회는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신다. 아울러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이나 축복이 되지 않을 일을 시키지 않으신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이 어렵더라도 충실히 행한다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절대 선교 사업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

**주**

1. 닐 엘 앤더슨, “여러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13쪽.
2. 제프리 알 홀랜드, “내가 믿나이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94쪽.
3. 닐 엘 앤더슨, “여러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13쪽.
4. 제프리 알 홀랜드, “내가 믿나이다”, 94~95쪽.
5. 리차드 지 스코트, “지금도 선교사로 봉사할 때입니다”,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90쪽.
6. 제프리 알 홀랜드, “앞으로 성취할 최고의 것”, *리아호나*, 2010년 1월호, 21쪽.
7. Boyd K. Packer, “Come, All Ye Sons of God,” *Ensign*, Aug. 1983, 71.



# 사람들의 대화에 끼고 싶다는 이유로, 나쁜 일을 딱 한 번 시도해 보겠다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게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여** 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우리에게 계명이 주어진 이유를 친구가 기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명을 주시며, 우리가 행복해지고 그분처럼 되는 데 계명이 도움이 되리라는 것을 아십니다. 신약전서에서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한복음 14:15)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보이고, 또 주님의 속죄와 복음에 대한 감사를 보이는 것임을 친구가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아울러 그저 단 한 번 뿐일지라도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온다는 것을 친구에게 일깨워 줄 수 있습니다. 즉 죄를 경험하게 되면,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고의로 계명을 어기는 것은 마치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뒷걸음치며 그분이 친구나 다른 사람들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영의 인도를 통해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면 영은 죄를 실험하여 배울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많은 가르침을 줄 것입니다.



## 실험해 볼 필요는 없잖아요

저라면 친구에게 “무엇이든지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무엇이든지 악한 것은 악마로부터 옵니다”(엢마서 5:40)라는 말씀을 알려 주겠습니다. 또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며 해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설명해 주겠습니다. 악을 꼭 경험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미 너무도 많은 악이 널려 있으며, 많은 사람이 계명을 지키지 않아 비참하게 사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비니시우스 에스, 17세, 브라질 상파울루



## 유혹을 이기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입장이 어떠한가 하는 것임을 친구에게 알려 주십시오. 현세적 경험을 하는 대가로 영원한 구원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 여러분이 어떻게 유혹을 이겨 냈는지 말해 줄 수 있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에밀리 지, 19세, 푸에르토리코

## 우리는 신성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한 가지의 나쁜 선택으로 크게 탈 날 것은 없어 보이더라도 그게 더 심각한 죄로 이끄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성구를 이야기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나 주는 죄를 털끝만큼도 묵과할 수 없느니라.”(교리와 성약 1:31) 단 한 번일지라도 죄를 경험하게 되면 영의



음성에 둔감해지게 된다는 것을 친구에게 상기시켜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친구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고, 올바른 선택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딸로서 신성한 잠재력을 실현하는 한 부분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아드리아나 에프, 17세, 미국 애리조나

**단 한 번으로도 상처는 생깁니다**

비록 단 한 번이라 할지라도 나쁜 일을 하게 되면 영은 떠나게 됩니다. 영이 떠나면, 사탄이 나쁜 일을 더 하도록 유혹하기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 또 어떤 죄를 몇 번 저질렀든 간에 모두 회개해야 하며, 심각한 죄를 회개하는 것은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에밀리 엘, 14세, 미국 유타



**굳건함**

친구에게 사랑한다고 말해 주고, 옳은 일을 택하도록 돕고 싶다고 하면서 힘을 북돋아

주십시오. 저는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복음대로 생활하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 사이 좋게 지낼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영이 도와줄 것입니다. 친구에게 자신이 먼저 굳건해지면 다른 사람들이 계명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친구를 돕고 친구를 위해 봉사하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바니나 피, 19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멈출 수 없게 될지도 몰라요**

저라면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고 말해 주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고 나면

멈추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한 번만 나쁜 일을 해 보겠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지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터글러스 비, 13세, 미국 캘리포니아

**시작은 작은 일에서부터**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은 언젠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한 걸음을 주의하십시오.” (“내 영혼의 원수를 위한 자리는 없나니”,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45쪽) 저라면 사탄은 작은 것으로 유혹해서 악한 길로 걸음을 내딛게 한다는 점을 친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나쁜 일을 시도한다면, 그것은 그 일을 되풀이하도록 사탄과 그 추종자들이 여러분을 유혹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시밀로니 에프, 18세, 미국 유타



**한 번 해 보지 그래?**

“오래전, 제 아들 아이 하나가 저에게 술이나 담배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직접 맛을 보려고 하는 생각이 왜 좋지 않은지 물은 적이 있습니다. ... 저는 만일 그렇게도 무언가를 시험해 보고 싶다면 헛간에 가서 퇴비를 먹어 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움찔 놀라더니 ‘에이, 구역질 나잖아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쁘구나. 하지만 네가 직접 알아보기 위해 한번 시험해 보지 그러니? 네가 알기에 너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을 시험해 볼 생각이 있다면 그 원리를 몇몇 다른 것들에도 적용해 보지 그러니?’ 하고 말했습니다.”

십이서도 정원희 딸린 에이저 욱스 장로, “죄와 고통”, 성도의 빛, 1994년 4월호, 32쪽.

**다음 질문**

“제 부모님은 욱을 하고, 시끄러운 음악을 듣고, 부적절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십니다. 어떻게 하면 집에서 영을 느낄 수 있을까요? 특히 일요일에 말입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고화질 사진(원할 경우)을 2015년 7월 1일까지 [liahona.lds.org](mailto:liahona.lds.org)로 제출하거나 [liahona@dscchurch.org](mailto:liahona@dscchurch.org)에 이메일로, 또는 우편으로 보내 주십시오.(3쪽의 주소 참조)

이메일 혹은 우편으로 보내실 때, 다음 사항과 동의서도 같이 보내셔야 합니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워드(또는 지부), (4) 스테이크(또는 지방부), (5) 서면 동의서, 18세 미만은 원고와 사진을 출판해도 좋다는 부모 동의서(이메일도 가능함.)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보내 주신 의견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 경전 공부 퍼즐

그림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경전을 공부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점점 더 큰 그림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코디 필립스

**20** 11년 9월, 베트남 대학교 학생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조각 그림 퍼즐을 맞춰 세계 기록을 수립했다. 1,600명의 학생들이 17시간에 걸쳐 551,232조각을 모두 맞추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들은 사람, 지리, 역사, 문화, 교육, 경제를 나타내는 여섯 옆으로 된 15미터×23미터 크기의 연꽃 그림 퍼즐을 만들었다. 50만개가 넘는 작은 조각이 서로 맞춰지면서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만드는 것을 생각해 보라. 퍼즐의 조각 하나 하나는 그것 하나만 보자면 하찮고 별로 흥미롭지도 못한 물건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단 한 조각이라도 빠지면 그림은 완성될 수 없다.

경전은 조각 맞추기 퍼즐과 같다. 조각을 많이 맞출수록 하나님 계획의 진리를 더 많이 보게 된다. 그 계획을 보는 시야가 커지면, 경전이 재미있고 자신의 삶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를 알게 된다.

큰 그림과 작은 조각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 경전 공부 제언을 소개한다. 이 조각들을 맞출 때, 경전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 교리: 영원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 큰 조각들

경전에서 우리는 복음 교리와 원리들을 배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에] … 유익하니”(디모데후서 3:16)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한복음 14:6 참조), 예수님과 그분의 교리에 대해 배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연구하[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요한복음 5:39)라고 요청하신 것이다.

## 사람: 교훈을 가르쳐 주는形形色색의 조각들

경전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볼 수 있다. 그들 중에 여러분은 누구를 가장 존경하는가? 위험 앞에서도 용감하게 순종했던 암몬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굳건한 신앙과 고결성을 지닌 욥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주인에게 말을 한 나귀에 대해(민수기 22장 참조), 또는 용서받기 위해 자신의 왕국을 기꺼이 포기한 사약했던 왕에 대해(엘마서 22장 참조), 혹은 도시 전체에서 유덕한 사람으로 알려진 한 여인에 대해(룻기 1-4장 참조) 읽어 본 적이 있는가?

반면, 경전에는 존경할 수 없는 사람들도 등장한다. 그들에게서, 그리고 그들이 한 어리석은 선택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경전에 나오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여러분은 어떻게 좋은 모범은 따르고 실수는 피할 수 있을지 자문해





보라. 그들의 생애는 모든 조각 중에서도 가장 흥미롭고 다채로운 색깔을 띠고 있다. 그들의 경험은 인상 깊은 방식으로 우리가 복음 원리를 배우고 기억하게 해 준다.

**상징: 감춰진 조각들을 드러내는 것**

때로 경전에는 복음 원리를 가르치는 상징들이 등장한다. 상징을 보지 못하면, 퍼즐 조각을 놓치게 된다. 놓쳐버린 조각을

찾는 데에는 교회 공과와 세미나리 공과, 그리고 경전 안내서,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 교재가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창세기 22장 참조) 우리에게 영감을 주지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과 우리를 위한 구주의 속죄 희생을 (야고보서 4:5 참조) 상징하는 것임을 알면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온다.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싶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할 때, 우리는 경전을 탐구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면 그분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희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거룩한 경전: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권능”, 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26~2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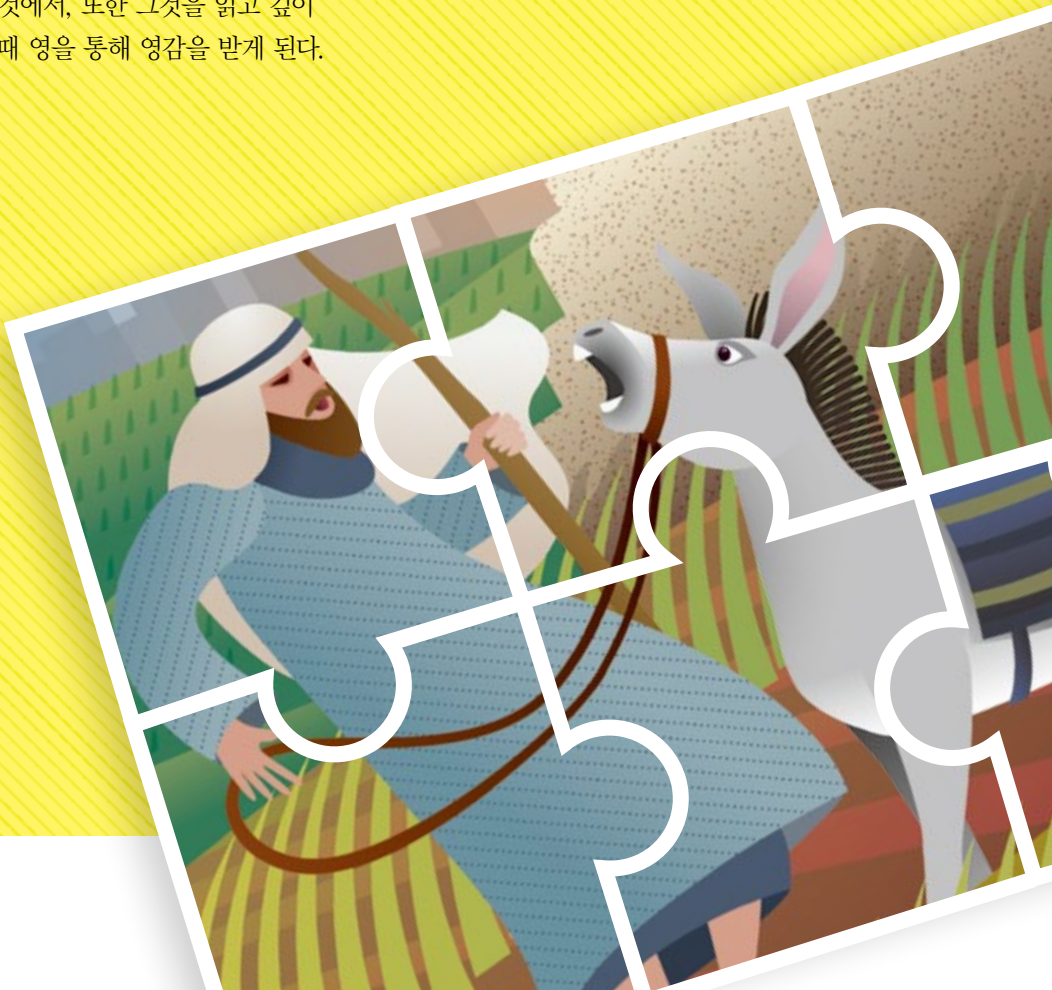
### 성신: 무엇과 연결해야 하는지 조각을 찾아 줌

어떤 퍼즐 조각들은 얼추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정확하게는 맞지 않는 것들이 있다. 영을 통해 우리는 어떤 조각들이 실제로 맞는지 알아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도와 명상을 통해 성신의 도움을 청할 때, 전에 공부했던 구절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구절들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볼 수 있도록 영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상적으로, 우리는 경전에 기록된 것에서, 또한 그것을 읽고 깊이 생각할 때 영을 통해 영감을 받게 된다.

### 적용: 조각을 함께 맞춤

조각을 맞추지 않으면, 퍼즐이 어떤 그림을 만들지 알 수가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경전에서 배우는 교리와 원리, 계명은 우리가 배운 것에 따라 생활하지 않는 한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요한복음 7:17 참조) 매일 경전에서 배운 복음 원리에 따라 생활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신앙과 간증은 더욱 강해질 것이며, 또한 경전 공부가 우리 삶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 복음으로 맺어진 자매

내 삶에 임한 복음의 축복을  
볼 수 있었기에 루피타와도  
복음을 나누고 싶었다.



파올라 사라히 에르난데스 크루즈

**나**는 내 친구 루피타를 친자매처럼 사랑한다. 우리는 6학년 때 만났고, 학교 악단 활동을 같이 했다. 그리고 다음 학년에는 더 가까워져서 진심으로 서로 믿고 의지하기 시작했다. 루피타는 아빠가 집에 안 계신 데다가 엄마도 루피타에게 신경을 써 줄 여력이 없으신 상황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나에게 털어놓았다. 루피타는 부모님의 무관심 때문에 슬퍼했다. 루피타는 외로웠고, 그래서 늘 나를 의지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가정에 태어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느끼게 되었다. 복음은 많은 친구들이 느끼지 못하는 화평을 내 삶에 가져다주었다. 나는 내 삶에 임한 복음의 축복을 볼 수 있었기에 루피타와도 복음을 나누고 싶었다.

나는 루피타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상호 향상 모임에 초대했다. 루피타는 흔쾌히 수락했고, 우리 가족과 함께 교회 모임과 와드 활동에 오기 시작했다. 나는 선교사들을 소개했고, 선교사들은 루피타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침례를 권했다. 간증을 얻게 된 루피타는 어머니에게 침례를 받아도 되는지 여쭙어 보았고,

어머니는 허락하셨다.

침례식 날은 무척 특별했다. 루피타가 하나님 아버지를 늘 기억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성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날 루피타에게 간증을 전하며, 이제 올바른 길에 들어섰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루피타를 자랑스러워하실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나는 루피타를 사랑한다. 루피타가 내 친구라서, 또 이제 복음 안에서 나와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정말 행복하다. 루피타는 더 행복해질 것이다. 루피타가, 또 루피타가 꾸리게 될 가정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루피타는 내게 복음을 알려 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또, 교회에 다닌 이후로 삶이 훨씬 나아지고 평안을 느끼게 되었다고도 했다. 루피타가 그렇게 느낀 것은 영이 루피타에게 진리에 대한 확신을 알려 주었기 때문임을 나는 안다. 또, 루피타는 나중에 자기도 성전에서 결혼할 거라고 말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드린다. 이렇게 친구를 찾게 되었고, 또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나누면서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 글쓴이는 멕시코 멕시코 주에 산다.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들입니다.

# 성신으로

## 어떻게 인도될 수 있는가?

잘 조련된 말에게  
마부가 무언가를 시키고  
싶다면, 고삐를 부드럽게  
당기지만 하면 됩니다. 이런  
부드러운 당김은 고요하고  
작은 음성과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신의 부드러운 당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신의  
부드러운 속삭임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성신은 우리가 하늘  
아버지에게 돌아가도록  
안내해 줄 것입니다.



삽화: 수지 게트헤르트

“충실함을 통한  
순종”,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100~103쪽.

# 성신

(쉽게 편곡한 노래)

간결하게 ♩ = 126-138

작사 및 작곡  
진 피로울러

C A7 G7 C

1. 주 세 상 계 실 때 약 속 해 주 셧 네 성  
2. 신 권 권 능 으 로 확 인 을 받 으 면 우

5 4 3 1

F Fm G7 C

2 신 을 보 내 우 리 를 인 도 하 리 라 고 성  
리 를 인 도 하 시 는 성 신 받 게 되 니 성

3 2 1 2 1

Caug F B Em

령 은 속 삭 이 네 작 은 소 리 로 하  
의 의 작 은 소 리 들 을 수 있 네 나

3 3

A7 Dm G7 C

나 님 과 그 리 스 도 중 거 해 주 시 네  
언 제 나 그 빛 따 라 바 른 일 행 하 리

5 2 1 1

© 1989, 1977, 2015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이 곡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임시 사용하기 위해 복사할 수 있음.  
이 표시는 반드시 각 사본에 다 포함되어야 함.

# 선한 목자

에린 샌더슨

**어**느 날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을 만큼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에 관한 이야기(또는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마치 이 이야기에 나오는 양 떼와 같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때로 선한 목자로 불리십니다.

어떤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을 뵈러 왔을 때, 예수님은 사랑을 보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누가복음 18:16) 그런 다음 예수님은 아이들을 팔에 안고 축복해주셨습니다.

구주께서 여러분을 팔에 안고 축복하시는 모습을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구주에 관해 배우거나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신은 여러분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도록 도와주십니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 더 알아보기

**용납하고**—허락 또는 허용하고

**금하지 말라**—막지 말라



## 가족과 대화하기

요한복음 10장 1~5, 11~16절을 읽어 보세요. 그런 다음 예수님이 목자와 같은 점을 표로 만들고, 구주의 사랑을 느꼈던 때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노래:**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어린이 노래책, 35쪽)

**성구:** 누가복음 18:15~17; 요한복음 10:1~5, 11~16

**영상 자료:** “Suffer the Little Children to Come Unto Me(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및 “Jesus Teaches that We Must Become as Little Children(어린아이들처럼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시는 예수님)”(Biblevideos.org)



## 우리의 선한 목자

이 그림을 잘라 내세요. 흰 선을 따라 부채처럼 접으세요. 그런 다음 그 부채를 펼쳐서 오른쪽 면과 왼쪽 면을 살펴보세요. 여러분은 선한 목자의 사랑을 어떻게 느끼나요?

## 경전 공부 도움말

경전 안내서에서 “복음서”를 찾아서, 각 사건과 가르침에 관한 이야기가 어떤 책에 나오는지 알려 주는 도표를 찾아보세요. 선한 목자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답니다. 나머지 세 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축복하셨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 우리들 이야기



저는 침례 받을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여덟 살이 되었던 지난 해에 저는 아빠와 엄마, 가족들, 그리고 교회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침례를 받았습니다. 제게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침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을 하늘에서도 축하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저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침례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성약을 맺습니다. 침례를 받았다는 제 결정이 옳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사리아 제트, 8세, 온두라스



저는 티셔츠에 힐라맨의 용사들을 그렸습니다. 저도 그들처럼 충실하고, 용감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정자은, 6세, 타이완



성전에 있는 가족 그림입니다.  
세리자 티, 8세, 멕시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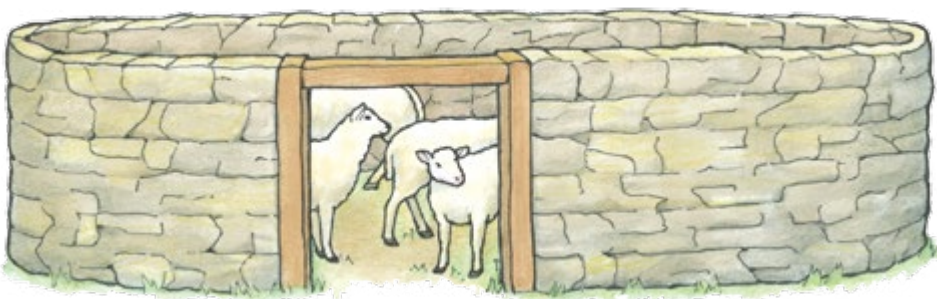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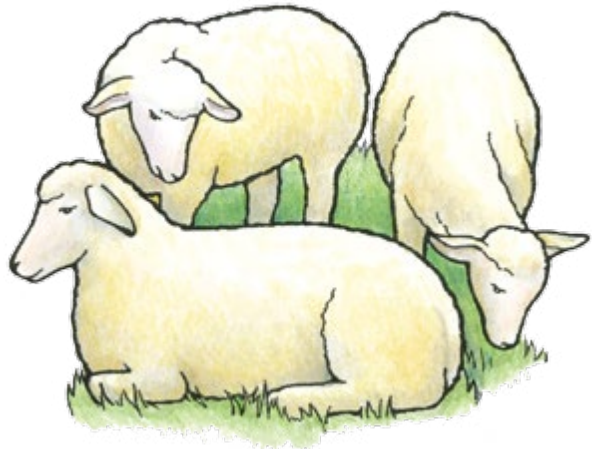
우리는 부모님을 따라 성전에 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성전은 아름답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니파이 브이, 브라이언 브이, 6세 및 9세, 에콰도르



# 선한 목자

요한복음 10:1~5, 11~16

이 종이를 두꺼운 종이나 마분지에 풀로 붙이세요. 그런 다음 인물들을 오려 내어 공예용 막대나 종이 봉투에 붙이세요. 그것을 봉투에 담고 겉봉에 참조 성구를 적어 보관하세요. ■



[liahona.lds.org](http://liahona.lds.org)에서  
더 많은 그림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 스티븐의 첫 번째 미래 아버지의 날

켈리 조지 퍼실  
실화에 근거함.

**초** 등회 어린이들이 새 노래를 연습하는 동안 스티븐은 넥타이를 턱밑까지 말았다 풀었다 하기만 했어요. 절대로 스티븐이 이 노래를 부르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 가족 이끄시네. ...

스티븐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천장을 올려다보기를 반복했어요. 의자에 앉아 마치 춤추는 듯 몸을 들쭉입니다. 노래를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가 없었어요. 목에 크고 불편한 흰가가 꼭 걸려 있는 것만 같았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한 번에 한 줄씩 새 가사를 배우며 계속 노래를 불렀습니다.

모든 옳은 것 속에 지혜의 빛으로  
아버지는 나에게 선을

행하시네. ("Fathers," *Children's Songbook*, 209)

그때, 스티븐은 누군가 자기 팔을 툭툭 건드리는 것을 느꼈어요. 초등학교 교실 문가에서 조용히 바라보시던 엄마가 스티븐의 팔을 슬며시 잡아당기셨어요. 엄마는 스티븐을 복도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친구들이 보이지 않자 스티븐은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엄마는 스티븐을 따뜻하게 꼭 안아 주셨어요.

엄마는 "속상해해도 괜찮아."라고 스티븐의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노래를 듣는 것도, 부르는 것도 힘들다는 거 알아."

스티븐은 고개를 끄떡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의 날에 그런 노래를 부르고 싶지 않아요. 제겐 아빠가 없으니까요." 스티븐은 벌개진 눈으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는 그 사람을 아빠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오랫동안 본 적도 없고, 제 아빠가 되어 주려 하지도 않잖아요."

스티븐은 울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여전히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노랫소리가 스티븐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젠 스티븐과 스티븐의 동생을 보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아빠와 아빠의 새로운 아내 두 사람 다 그렇게 하고 싶다는 편지를 받았을 때처럼 말이예요.

엄마는 다시 스티븐을 끌어안아 주셨어요. 스티븐의 눈물이 엄마의 셔츠를 적셨습니다. "초등회 회장님에게 말씀드릴게. 네가 부르고 싶지 않다면 그렇게 해. 그런데 스티븐, 엄마에게 좋은 생각이 하나 있어." 엄마는 스티븐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우리는 아버지의 날을 기념하진 않을 거야. 대신에 미래 아버지의 날을 보내자!" 엄마는 활짝 웃어 보이셨어요. 스티븐은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뭐 한다고요?"

"미래 아버지의 날. 너와 네 동생이

나중에 아주 훌륭한 아빠가 될 걸 축하하는 거야. 선물과 케이크도 준비하고, 네가 좋아하는 음료수도 먹고 말이지!”

엄마는 스티븐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형클어진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었어요. “스티븐, 너는 멋진 아빠가 될 거야. 엄마가 장담할 수 있어. 너는 이미 네 아이들과 무엇을 할지 생각하면서 어떤 아빠가 될지 계획하고 있잖아.”

그 생각을 할수록 스티븐은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스티븐은 한결 나아진 기분으로 엄마를 꼭 안아

드리고서 초등학교 교실로 돌아갔어요.

2주 후에 스티븐은 거울 앞에 서서 멋진, 새 나비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스티븐의 첫 번째 미래 아버지의 날을 맞아, 아침에 엄마가 선물해 주신 넥타이였어요! 스티븐은 경전을 들고 교회에 가기 위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스티븐은 엄마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행복한 아버지의 날이에요.”

엄마도 행복한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스티븐, 행복한 아버지의 날 보내렴.” ■

글쓴이는 호주 퀸즐랜드에 산다.



**목적이 있는 계획**

“자신의 나이와 처한 환경에 상관없이 **목적 있는 삶을 계획하도록** 당부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신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리야호나, 2013년 5월호, 67쪽

“신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리야호나, 2013년 5월호, 67쪽



# 미아의 간증



## 어밀리아 호킨스

실화에 근거함.

“성령은 속삭이네 작은 소리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증거해 주시네”(어린이 노래책, 56쪽)

**잠** 자리에 들 시간이 지났지만 미아는 침대에 있지 않았습니다. 미아는 두벌 자매님이 초등학교에서 읽어 주신 이 말을 생각하며 방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그 누구도 빌려온 빛으로는 서 있을 수 없는 날이 옵니다.”<sup>1</sup>

두벌 자매님은 “간증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빛과 같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자기만의 간증이 필요해요. 그러면 삶의 어려움이나 사탄의 유혹 속에서도 우리는 강인할 수 있어요.”

미아는 침대에 머리를 기대며 생각했습니다. ‘복음이 참되다는 간증이 있으면 좋겠어.’ 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하면 간증을 얻을 수 있나요? 미아는 그 방법 중 하나가 기도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거야.”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미아는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려 줄 어떤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필요하다면 밤새도록 기도할 준비도 되어 있었습니다!

미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교회가 참된지 알고 싶어요. 그걸 마음속으로 느끼고, 정말 알고 싶어요.”

미아는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기도할 때 느끼는 그런 부드러운 느낌 외에 별다른 느낌이 없었습니다. 미아가

될 잘못된 걸까요? 미아의 간증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미아는 꽤 오랜 시간을 그렇게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방문이 살짝 열리더니 살며시 들여다보는 아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문 아래 틈새로 불빛이 보이더구나. 다시 일어나 책을 읽고 있는 거니?”

아빠는 미아 볼에 흐르는 눈물을 발견했습니다. 아빠는 무릎을 꿇고 앉아 두 팔로 미아의 어깨를 감싸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니?”

잠시 아무 말 없이 잠자코 있던 미아는 아빠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간증은 어떻게 얻나요?”

아빠는 미아를 꼭 껴안아 줬습니다. “훌륭한 질문이구나. 간증을 얻고자 바라는 것이 바로 그 첫 단계 중 하나란다.”

미아는 딱 메던 목이 조금씩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 한번의 기도로 간증이 생기는 때는 거의 없어. 그리고 간증이 있더라도 계속 간직하려고 노력해야 하지.”

“그런데 간증은 어디에서 와요?” 미아는 궁금했습니다.

“간증은 성신에게서 온단다.” 아빠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정의 밤이나 교회 모임에서 따뜻하고 좋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니?”

미아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아빠가 특별한 축복을 해 주셨을 때 기분이 좋았어요.” 미아는 다른 것도 더 생각해냈습니다. “연차 대회에서 몬슨 회장님 말씀을

들을 때 언제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껴요. 또 제가 친구들에게 잘해 줬을 때나 경전을 읽을 때도 기분이 좋아요.”

아빠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성신께서 너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란다. 우리가 뭔가 옳은 일을 하거나 뭔가 참된 것을 들을 때 성신은 그런 느낌을 보내 주시지.”

“지금도 따뜻하고 행복한 느낌이 들어요.” 미아가 말했습니다. “이것도 성신인가요?”

아빠는 다시 한 번 미아를 꼭 껴안아 줬습니다. “맞아. 우리가 참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성신이 알려 주고 계신 거야. 그리고 바로 이게 간증을 얻는 방식이기도 하지.”

잠시 후에 미아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미아는 아직 모든 간증을 다 얻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아빠의 말씀이 참되다는 그 따뜻하고 좋은 느낌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미아는 이 느낌이 바로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아는 파스한 이불 안으로 꼭 들어가서 두 눈을 꼭 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간증을 얻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또, 아빠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미아는 이렇게 속삭인 후 스스로 잠이 들었습니다. ■

글쓴이는 미국 애리조나에 산다.

주

1. Orson F. Whitney, *Life of Heber C. Kimball* (1967), 450.

# 십일조로 지은 집

재넬 윌리엄스



이 친구는 잭입니다.  
잭의 동전들이 짤랑거리고  
있어요. 이 동전은 잭이  
십일조로 낼, 자기가 얻은  
돈의 십분의 일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이 분은 잭이 자기 돈의  
십분의 일을 십일조로  
드렸을 때 잭과 악수를 나누는  
감독님이에요.





책이 십일조로 자기 돈의 십분의 일을 내면서 악수를 나누는 감독님이 보낸 십일조를 가지고, 활기차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읍시다.”라고 하는 이분은 선지자님이예요.



하얗게 빛나는 이 건물은 빛으로 가득 찬 주님의 집인 성전이에요. 책이 십일조로 자기들의 십분의 일을 내면서 악수를 나누는 감독님이 보낸 십일조를 가지고 “성전을 지읍시다.”라고 선지자께서 말씀하셨기에, 이 성전은 십일조로 지어진 집이에요.



잭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가족 인봉을 받으려고 반짝반짝 하얗게 빛나는 성전으로 갔어요. 잭의 얼굴에도 반짝반짝 빛나는 함박웃음이 피어나 있어요. ■



# 책의 십일조는 어디에 있나요?

책이 팔랑대는 십일조 동전을 모두 찾으세요!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 내려놓으십시오

제 친구의 세계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아내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이 근심과 슬픔 또는 수치심, 시기, 실망 또는 질투심, 그리고 자기 비난이나 자기 정당화로 인한 고통을 겪는다면 여러 해 전에 어느 축복사가 저에게 가르쳐 준 이 교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보기 드문 성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

그는 작은 마을에서 자랐으며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야망을 품고 교육을 받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래성이 있는 좋은 직장에 취직했고 아내와 서로 깊이 사랑했으며, 아내는 첫 아기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으려던 날 밤,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을에 단 하나뿐인 의사가 외딴곳으로 병자를 치료하러 갔던 것입니다. ...

마침내 의사가 도착했습니다. 의사는 위급한 가운데서도 속히 일을 처리하여 곧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고 위기는 끝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젊은 어머니는 아기가 출생한 바로 그날 의사가 다른 가정에서 치료했던 환자의 병원체에 감염되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존의 세계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온통 잘못뿐이었습니다.



아내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린 아기를 돌보고 동시에 자기 일을 할 방법이 막연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의 슬픔은 더해만 갔습니다. “그 의사에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의사가 내 아내에게 병을 감염시켰어. 그가 조심했더라면 아내는 살 수 있었어.”

그는 그 밖의 다른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으며, 비통해 하는 속에서 험악해졌습니다. ...

그러던 어느 날 밤 누군가가 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조그만 아이가 와서, “아빠가 오시래요, 말씀드릴 게 있으시대요.”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빠”는 스테이크 회장을 뜻했습니다. ...

이 영적인 목자는 자신의 양 떼를 지켜보면서 그에게 뭔가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현명한 종에게서 나온 권고의 말은

너무도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형제님, 내려놓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 아내의 생명을 소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형제님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일을 악화시킬 따름입니다. 내려놓으십시오. ...

그는 자신을 자제하려고 고통 속에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순종해야겠다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순종은 강력한 영적인 약입니다. 거의 만병통치약과 같습니다.

그는 이 현명한 영적 지도자의 말에 따르기로 마음먹고 모든 짐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런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늙은 때까지, 그 가난한 시골 의사가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것과, 치료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의료품도 넉넉하지 못하고 병원 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가운데서도 뛰어다니며 이 환자 저 환자를 돌보아 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의사는 생명을 살리려 애쓰던 분이었고 대부분 성공했지요.

두 사람의 생명이 저울대에 올려진 위급한 순간에 그는 조금도 지체 없이 일을 했던 것이지요.

저는 늙은 후에야 결국 그것을 깨달았답니다. 하마터면 내 생애와 또 다른 사람의 생애를 망칠 뻔했지요.”

그는 “형제님 그대로 내버려 둬시다.”라고 권고해 준 현명한 영적 지도자를 주신 것에 대해 무릎을 꿇고 수없이 주님께 감사 드렸습니다. ■

“길르앗의 유향”, 성도의 빛, 1988년 1월호, 18~20쪽에서

# 통찰



## 어떤 태도가 인생에서 중요합니까?

이생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기쁨에 넘치는 백성입니다. 훌륭한 유머 감각에 감탄하고 친구 및 가족과 함께 격의 없이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의 근간이 되어야 하는 중대한 목적이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 이번 호에서

## 청년 성인

### 주님에게서 오는 확신을 신뢰하며

우리는 시련에서 구조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에게서 오는 확신을 구한다면, 어려운  
시기에도 모든 일이 잘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2쪽

## 청소년

56쪽



### 하지만 만일 ...?

#### 선교 사업에 관한 질문

복음을 잘 알지 못해서, 간증이 강하지 않아서,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라서 걱정하고  
있습니까? 선교 사업을 나가기 전에 흔히 느끼게 되는  
의문과 염려에 대한 답을 찾아 보십시오.

## 어린이

### 미아의 간증

미아는 복음에 대한 자신만의 간증을  
갖고 싶었습니다. 미아가 어떻게 간증을  
얻게 되었는지 알아보시다.



74쪽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